CHARLES DICKENS · A CHRISTMAS CAROL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전5장 · 1843년 초판 존 리치 삽화

1843년 영어 원문을 옮긴 한국어 번역입니다.
AI가 번역하고 검수했으며 전문 번역가의 교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머리말과 전5장 전체 본문 수록.

차례

1. 머리말.....3

2. 제1장 · 말리의 유령 4

3. 제2장 · 세 유령 중 첫째 유령.....42

4. 제3장 · 세 유령 중 둘째 유령.....77

5. 제4장 · 마지막 유령 121

6. 제5장 · 그 뒤의 이야기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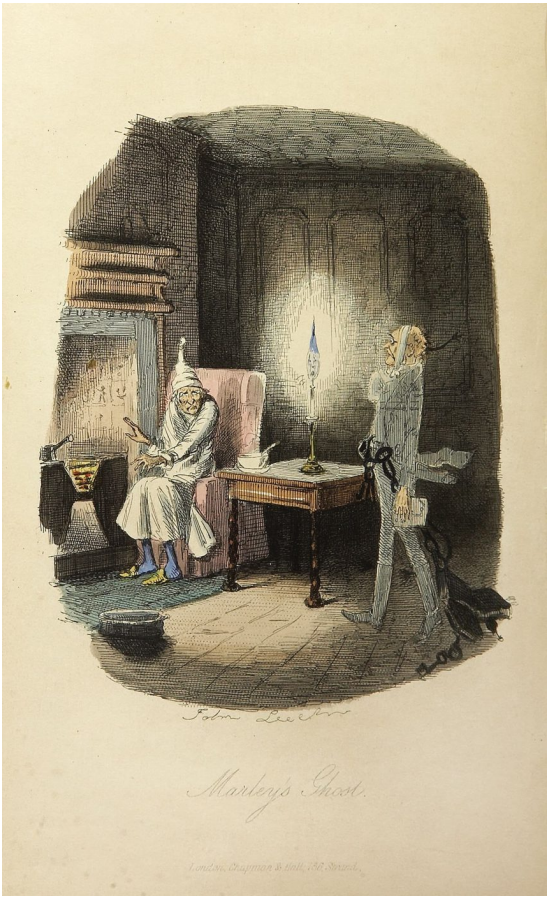
머리말

나는 이 유령 같은 작은 책에서 하나의 생각의 유령을 불러내려고 애써 보았다. 그 생각이 독자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이 계절에도, 나에게도 언짢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독자들의 집을 즐겁게 드나들기를, 그리하여 아무도 그것을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독자들의 충실한 벗이자 종, C. D.
1843년 12월

제1장

말리의 유령



존 리치, 「말리의 유령」(1843년 초판 삽화)

말리는 죽었다. 우선 그 사실부터 말해 두자. 이 점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매장 기록에는 목사와 서기, 장의사와 상주 대표가 서명했다. 스크루지도 서명했는데, 증권거래소에서 스크루지의 이름은 무엇이든 그가 서명하기만 하면 통하는 이름이었다. 늙은 말리는 문에 박은 못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어 있었다.

잘 들어 두라! 내가 문에 박은 못이 어떤 점에서 특별히 죽었는지 내 경험으로 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 같으면 관 못이야말로 철물 업계를 통틀어 가장 죽은 쇠붙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비유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이 불경스러운 손으로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다.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말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허락해 준다면 나는 힘주어 다시 말하겠다. 말리는 문에 박은 못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어 있었다고.

스크루지는 그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물론 알고 있었다. 달리 될 수가 없었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몇 해 동안이었는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업자였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유일한 유언집행인이자 유일한 유산관리인이었고, 유일한 양수인이었으며, 유일한 잔여재산 수령인이었고,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조문객이었다. 그렇다고 스크루지가 그 슬픈 사건에 그토록 깊이 가슴

아파했던 것은 아니다. 장례식이 열린 바로 그날에도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틀림없는 거래 하나를 성사시키며 장례를 치렀다.

장례 이야기가 나오니 내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야겠다. 말리가 죽었다는 데에는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에서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햄릿의 아버지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가 동풍이 부는 밤에 자기 성벽 위를 거닌다는 것도 별로 놀라울 게 없을 것이다. 밤이 된 뒤 바람 부는 곳에 무모하게 나선 다른 중년 신사가 있다고 해 보자. 세인트폴 성당 묘지쯤이라고 하자. 햄릿의 아버지가 성벽을 거니는 일도, 그런 신사가 말 그대로 아들의 여린 정신을 놀라게 하려고 나선 일보다 더 놀라울 게 없다는 말이다.

스크루지는 늙은 말리의 이름을 한 번도 지우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이름은 창고 문 위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스크루지 앤드 말리. 회사는 '스크루지 앤드 말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스크루지를 스크루지라고 불렀고, 때로는 말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두 이름 모두에 대답했다. 그에게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였다.

아! 그러나 스크루지는 돈을 움켜쥐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인색한 사람이었다! 쥐어짜고, 비틀고, 움켜잡고, 긁어모으고, 낚아채는, 탐욕스러운 늙은 죄인이었다. 부싯돌처럼 굳고 날카로워서, 그 안에서는 어떤 쇠도 너그러운 불꽃을 튀기지 못했다. 굴처럼 비밀스럽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며 외로웠다. 그의 안에 있는 냉기가 늙은 얼굴을 얼어붙게 하고, 뾰족한 코를 꼬집고, 뺨을 쪼그라들게 하고, 걸음걸이를 뻣뻣하게 만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얇은 입술은 파랬다. 그가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할 때면 거기에도 냉기가 날카롭게 묻어났다. 머리와 눈썹과 억센 턱수염 위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만의 낮은 온도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한여름 복날에도 사무실을 얼음처럼 차갑게 했고, 크리스마스에도 그 온도를 단 1도조차 높이지 않았다.

바깥의 더위와 추위는 스크루지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어떤 온기도 그를 데우지 못했고, 어떤 겨울 날씨도 그를 얼어붙게 하지 못했다.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그보다 매섭지 않았고, 내리는 어떤 눈도 그보다 제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쏟아지는 어떤 비도 그보다 애원에 귀를 막지 않았다. 궂은 날씨도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가장 세찬 비와 눈과 우박과 진눈깨비도 그에 비해 단 한 가지 점에서만 우위를 자랑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종종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스크루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아무도 길에서 그를 불러 세우고 반가운 얼굴로 "스크루지 씨, 잘 지내셨어요? 언제 우리 집에 오실 건가요?"라고 말을 건네지 않았다. 구걸하는 사람도 그에게 몇 푼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묻지 않았다. 평생 동안 어떤 남자도 여자도 그에게 이런저런 곳으로 가는 길을 물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개조차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개들은 주인을 끌고 문간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는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눈이 아예 없는 편이 악한 눈을 가진 것보다 낫지요, 눈먼 주인님!"

하지만 스크루지가 그런 것을 신경이나 썼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그가 좋아하는 바였다. 인생이라는 붐비는 길을 조심조심 비집고 나아가며 모든 인간의 정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그것이 스크루지에게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말하는 '꿀맛'이었다.

옛날 옛적, 한 해의 좋은 날들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이브에 늙은 스크루지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날씨는 춥고 황량했으며 살을 에는 듯했고, 게다가 안개까지 끼어 있었다. 바깥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몸을 덥히려고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보도 위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도 들렸다. 도시의 시계들이 막 세 시를 쳤을 뿐인데도 이미 사방은 캄캄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밝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웃 사무실들의 창문마다 촛불이 일렁였고, 그 불빛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한 누르스름한 공기 위에 붉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안개는 모든 틈새와 열쇠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깥은 너무도 짙어서 마당이 아주 좁은데도 맞은편 집들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만 보였다. 더러운 구름이 축 늘어져 내려와 모든 것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자연이 바로 곁에 살면서 거대한 규모로 술을 빚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스크루지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서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었다. 서기는 저 너머의 음침한 작은 방, 일종의 수조 같은 곳에서 편지를 베끼고 있었다. 스크루지의 난로는 아주 작았지만, 서기의 난로는 그보다도 훨씬 작아서 석탄 한 덩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기는 불을 더 지필 수 없었다. 석탄 상자는 스크루지가 자기 방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가 부삽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주인은 곧 둘이 헤어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어김없이 못 박았다. 그래서 서기는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촛불로 몸을 녹여 보려 했다. 그러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던 그는 그마저 실패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하느님께서 삼촌을 지켜 주시기를!" 명랑한 목소리가 외쳤다. 스크루지의 조카 목소리였다. 조카는 어찌나 재빨리 다가왔는지, 스크루지는 그가 가까이 온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흥!" 스크루지가 말했다. "허튼소리!"

그는 안개와 서리 속을 빠르게 걸어온 탓에 몸이 훅 달아올라, 온몸이 발그레했다. 스크루지의 이 조카는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겼으며, 눈은 반짝거리고, 입김은 다시 하얗게 피어올랐다.

"크리스마스가 허튼소리라고요, 삼촌!"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그렇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가 무슨 권리로 즐거워하느냐? 무슨 이유로 즐거워하느냐? 넌 지지리도 가난하지 않으냐."

"자, 그렇다면요." 조카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삼촌이야말로 우울해할 무슨 권리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뚱해 있어요? 삼촌은 충분히 부자잖아요."

즉각 더 나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은 스크루지는 다시 "흥!" 하고 말했고, 이어서 "허튼소리!"라고 덧붙였다.

"화내지 마세요, 삼촌!" 조카가 말했다.

"화가 안 나고 배기겠느냐." 삼촌이 되받았다. "이런 바보들 천지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따위는 꺼져라! 너에게 크리스마스 시기란 무엇이냐? 돈도 없이 청구서를 갚는 때일 뿐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한 시간도 더 부유해지지는 않는 때다. 장부를 맞춰 보면 열두 달 내내 쌓인 항목들이 하나같이 너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때이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스크루지가 분개하며 말했다. "입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달고 다니는 모든 얼간이는 자기 푸딩에 삶아져서, 심장에 호랑가시나무 말뚝이 박힌 채 묻혀야 해. 그래야 마땅하다!"

"삼촌!" 조카가 애원하듯 말했다.

"조카야!" 삼촌이 엄한 목소리로 받았다. "너는 너대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는 나대로 지내게 내버려 두어라."

"지내라고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되받았다. "그런데 삼촌은 지내지도 않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놔두마,"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거 가지고 너나 잘 지내라! 지금까지 그게 너한테 좋았던 적이 있긴 하냐!"

"제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도 얻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카가 대답했다. "크리스마스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늘 좋은 때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 신성한 이름과 기원에 바치는 존경은 제쳐 두고라도요. 크리스마스에 속한 것 가운데 그것과 떼어 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이지만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자선을 베풀고, 즐거운 때 말이에요. 한 해의 긴 달력에서 사람들이 다들 합의라도 한 듯 닫아 두었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기는 제가 알기로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으로 가는 길동무로 여기게 되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다른 종족처럼 보지 않고요. 그러니 삼촌, 크리스마스가 제 주머니에 금화나 은화 한 푼 넣어 준 적은 없지만, 제게 좋은 일을 해 주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말하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축복 있기를!"

수조 같은 그 방에서 서기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곧 그것이 점잖지 못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는 불을 들쑤셔 마지막 남은 가냘픈 불씨까지 영영 꺼뜨려 버렸다.

"또 한 번 소리를 냈다간," 스크루지가 말했다. "일자리를 잃는 걸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될 게다! 너 말솜씨 한번 대단하구나." 그는 몸을 돌려 조카에게 덧붙였다. "네가 어째서 국회의원에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화내지 마세요, 삼촌. 자, 내일 우리랑 저녁 드시러 오세요."

스크루지는 그러느니 차라리 조카가 어떻게 되는 꼴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 표현을 끝까지 다 입에 올려, 그러느니 조카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꼴부터 보고 말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외쳤다. "왜요?"

"왜 결혼했는데?" 스크루지가 말했다.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사랑에 빠졌으니까라니!" 스크루지가 으르렁거렸다.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듯이. "잘 가거라!"

“아니에요, 삼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삼촌이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오시는 이유로 그걸 대시는 건가요?”

“잘 가거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저는 삼촌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무얼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왜 친구가 될 수 없겠어요?”

“잘 가거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정말 유감이에요, 진심으로요. 삼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니 말이에요. 적어도 제 쪽에서 삼촌과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서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러니 저는 끝까지 크리스마스 기분을 지킬 거예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잘 가거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거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에도 조카는 화난 기색 없이 방을 나갔다. 바깥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기에게 이 계절의 인사를 건넸다. 서기는 몸이 얼어 있었지만 스크루지보다 마음이 따뜻했으니, 그는 진심을 담아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저 녀석도 있군," 서기가 하는 말을 엿들은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내 서기 말이야. 주급 십오 실링을 받으면서 마누라와 자식까지 딸린 놈이 메리 크리스마스 타령이라니. 난 베들럼 정신병원에나 들어가야겠다."

이 미치광이는 스크루지의 조카를 내보내면서 다른 두 사람을 들여보내고 말았다. 그들은 보기에도 흐뭇할 만큼 살집 좋은 신사들이었고, 지금 모자를 벗은 채 스크루지의 사무실 안에 서 있었다. 그들은 손에 장부와 서류를 들고 있었고, 스크루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스크루지 앤드 말리 상사가 맞지요?" 신사 가운데 한 사람이 명단을 보며 말했다. "제가 지금 영광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스크루지 씨입니까, 아니면 말리 씨입니까?"

"말리 씨는 죽은 지 칠 년 되었소."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바로 오늘 밤, 칠 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그분의 관대함은 남은 동업자께서 고스란히 이어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사가 자신의 신임장을 내밀며 말했다.

확실히 그랬다. 두 사람은 같은 부류의 영혼이었으니까. 불길한 단어 "관대함"이 나오자 스크루지는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신임장을 돌려주었다.

"이 명절 시기에 말입니다, 스크루지 씨." 신사는 펜을 집어 들며 말했다.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약간이나마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수천 명이 생필품조차 없이 지내고 있고, 수십만 명이 기본적인 안락함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옥은 없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신사가 펜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구빈원은 어떻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아직도 운영되고 있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딤바퀴 형벌과 구빈법은 아직도 아주 활발히 시행되고 있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둘 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지요, 선생님.”

“아, 처음에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 유익한 일들이 멈출 만한 무슨 사정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했소”라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오.”

“그런 곳들이 대중의 몸과 마음에 기독교다운 위안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여기기에,” 신사가 대답했다. “우리 몇몇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 그리고 몸을 덥힐 수단을 사 줄 기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고른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궁핍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풍요가 기뻐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로 적어 드릴까요?”

“아무것도 적지 마시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익명으로 남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소.”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니, 신사 양반들, 그것이 나의 대답이오. 나는 크리스마스에 흥겨워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들을 흥겹게 해 줄 형편도 못 되오. 방금 말한 기관들을 나는 돕고 있소. 거기 내는 돈만 해도 적지 않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리로 가면 되오."

"그리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차라리 죽겠다면 그냥 죽으라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래야 남아도는 인구도 줄 것 아니오. 게다가 — 실례지만 — 나는 그걸 잘 모르겠소."

"하지만 알아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사가 말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스크루지가 받아쳤다. "사람은 자기 일이나 잘 알면 충분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요. 내 일만으로도 나는 늘 바쁘오. 잘들 가시오, 신사 양반들!"

신사들은 자기들 주장을 밀어붙여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물러났다. 스크루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한층 높아진 채, 평소보다 한결 익살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사이 안개와 어둠은 점점 짙어져서, 사람들은 불타는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며 마차 앞에서 말을 이끌어 주겠다고,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다. 벽에 난 고딕식 창문 너머로 늘 스크루지를 몰래 엿보던, 쉰 목소리의 늙은 종이 달린 낡은 교회 탑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탑은 구름 속에서 시각과 십오 분 단위를 쳤는데, 그 뒤에는 위쪽 얼어붙은 머리 안에서 이가 딱딱 부딪치기라도 하는 듯 떨리는 울림이 이어졌다. 추위는 살을 에는 듯했다. 큰길, 골목 어귀에서는 인부들이 가스관을 고치고 있었고, 화로에 큰 불을 피워 놓은 채였다. 그 둘레에는 누더기를 걸친 남자들과 소년들이 모여 손을 쬐고, 불꽃 앞에서 황홀한 듯 눈을 깜박이고 있었다. 홀로 버려진 수도꼭지에서는 흘러넘친 물이 뚱하니 얼어붙어, 세상을 미워하는 얼음이 되어 있었다. 가게들의 밝은 불빛은 창문의 램프 열기에 호랑가시나무 가지와 열매가 타닥거리는 가운데, 지나가는 창백한 얼굴들을 발갛게 물들였다. 가금상과 식료품점의 장사는 근사한 농담이자 찬란한 행렬이 되었다. 흥정이니 매매니 하는 그토록 따분한 원칙이 그 화려한 행렬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런던 시장은 막강한 시장 관저라는 요새에서, 쉰 명의 요리사와 집사들에게 런던 시장의 집안에 걸맞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시장이 지난 월요일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를 보고 싶어

날뛰었다는 이유로 오 실링의 벌금을 물렸던 그 작은 재봉사조차, 다락방에서 내일 먹을 푸딩을 휘젓고 있었다. 그동안 야윈 그의 아내와 아기는 소고기를 사러 밖으로 나섰다.

더욱 안개가 짙어지고 추워졌다. 날카롭고 파고드는, 살을 물어뜯는 듯한 추위였다. 선량한 성 던스턴이 악마의 코를 집을 때 늘 쓰던 무기 대신 이런 날씨의 한 자락으로 코를 꼬집어 주었다면, 악마는 정말이지 우렁차게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개가 뼈를 물어뜯듯 굶주린 추위에게 갉히고 짓씹힌, 애처롭게 작은 코를 가진 한 아이가 스크루지의 열쇠 구멍 앞에 몸을 숙이고 크리스마스 캐럴로 그를 즐겁게 해 주려 했다. 하지만 첫 소리가 들리자…

> “신의 축복이 있기를, 즐거운 신사여!
> 무엇도 그대를 낙담시키지 않기를!”

스크루지가 어찌나 기세 좋게 자를 움켜쥐었던지, 노래하던 사람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열쇠 구멍은 안개와, 그보다 더 반가운 서리에게 내버려 두고서.

마침내 사무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스크루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의자에서 내려왔고, 수조 같은 방에서 기다리던 서기에게 말없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 서기는 곧바로 촛불을 불어 끄고 모자를 썼다.

"내일은 하루 종일 쉬어야겠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편하시다면요, 사장님."

"편하지 않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지. 내가 그 일로 반 크라운을 깎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

서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도," 스크루지가 말했다. "일도 안 하는 날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데도, 너는 내가 억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서기는 그건 일 년에 한 번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십이월 이십오일마다 남의 주머니를 털려는 하찮은 핑계로군!" 스크루지는 큰 외투의 단추를 턱까지 채우며 말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쉬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그 대신 다음 날 아침엔 더 일찍 나와라."

서기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스크루지는 으르렁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사무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이 닫혔다. 서기는 흰 목도리의 긴 끝자락을 허리 아래까지 늘어뜨린 채(그는 외투가 없었다) 크리스마스이브를 기념해 콘힐의

비탈길에서 줄지어 선 소년들 맨 끝에 붙어 미끄럼을 스무 번이나 탔다. 그러고 나서 있는 힘껏 캠던 타운의 집까지 달려가 눈가리개 술래잡기를 했다.

스크루지는 늘 가던 침울한 선술집에서 우울한 저녁을 먹었다. 신문을 모두 읽고 남은 저녁 시간은 은행 장부를 들여다보며 달랜 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사는 곳은 죽은 동업자가 쓰던 방들이었다. 마당 안쪽에 우중충하게 서 있는 건물 안의 음침한 방 몇 칸이었는데, 그 건물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 보였다. 아직 어린 집이었을 때 다른 집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리로 뛰어든 뒤 나가는 길을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이제 건물은 충분히 낡았고 충분히 황량했다. 스크루지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고 나머지 방들은 모두 사무실로 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마당은 어찌나 어두운지, 돌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스크루지조차 손으로 더듬으며 걸어야 했다. 안개와 서리가 건물의 검고 오래된 대문 둘레에 짙게 드리워서, 날씨의 정령이 문턱에 앉아 쓸쓸한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런데 사실, 그 문고리에는 아주 크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 이것도 사실이다. 스크루지는 그곳에 사는 내내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보아 왔다. 또 스크루지는 런던

시민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른바 상상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감히 말하건대, 시의 행정위원회와 참사회 의원들과 동업조합원들까지 다 넣어도 그보다 더 상상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죽은 지 칠 년 된 동업자를 입에 올린 뒤로 스크루지가 말리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라. 그러니 누구든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설명해 보라고 하고 싶다. 열쇠를 문의 자물쇠에 꽂은 스크루지가, 문고리가 중간에 아무런 변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고리에서 문고리가 아니라 말리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지를.

말리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마당의 다른 물건들처럼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지 않았고, 어두운 지하실에 놓인 상한 바닷가재처럼 음산한 빛을 띠고 있었다. 화를 내거나 사나워 보이지 않았다. 생전의 말리가 늘 그랬듯이, 유령의 이마 위로 유령 안경을 밀어 올린 채 스크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숨결이나 뜨거운 공기에 흔들린 듯 이상하게 떨렸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과 창백한 잿빛 얼굴 때문에 끔찍해 보였으나, 그 끔찍함은 얼굴 자체의 표정이라기보다 얼굴로서도 어쩔 수 없이, 제 뜻과 상관없이 생겨난 것처럼 보였다.

스크루지가 이 현상을 가만히 바라보자, 그것은 다시 문고리로 변해 있었다.

스크루지가 놀라지 않았다거나, 그의 피가 어린 시절 이후로는 겪어 본 적 없는 끔찍한 느낌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놓았던 열쇠에 다시 손을 얹고, 힘차게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잠깐 망설이며 멈춰 섰다. 그리고 혹시 말리의 땋은 머리가 현관 쪽으로 삐죽 나와 있지 않을까 겁먹은 듯, 먼저 문 뒤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하지만 문 뒤에는 문고리를 붙들고 있는 나사와 너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흥, 흥!" 하고 말한 뒤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집 안을 울렸다. 위층의 모든 방과 아래층 포도주 상인의 지하 창고에 있는 모든 술통이 저마다 따로 메아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메아리 따위에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현관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갔다. 그것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초의 심지를 자르며 올라갔다.

여러분은 좋았던 옛 계단 위로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올라갈 수 있다고, 혹은 형편없는 새 법령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막연히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계단으로 영구차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며, 앞쪽 가로대를 벽 쪽으로, 문을 난간 쪽으로 향하게 해 옆으로 돌려서 올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만큼 폭이 넉넉했고 여유 공간도 충분했다. 아마 그래서 스크루지가 어둠 속에서 자기 앞에서 저 혼자 움직여 가는 영구차를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리의 가스등을 여섯 개쯤 가져다 놓았어도 현관을 그리 잘 비추지는 못했을 테니, 스크루지의 촛불 하나로는 꽤 어두웠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스크루지는 그런 것쯤 전혀 개의치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둠은 값싼 것이고, 스크루지는 어둠을 좋아했다. 그러나 무거운 문을 닫기 전에 그는 방들을 하나씩 거닐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은 그 얼굴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거실, 침실, 창고방.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탁자 밑에도, 소파 밑에도 아무도 없었다. 벽난로에는 작은 불이 타고 있었고, 숟가락과 대접이 준비되어 있었다. 난로 위에는 작은 냄비에 죽이 데워져 있었다(스크루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다).

침대 밑에도 아무도 없었고, 벽장 안에도 없었다. 가운 속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 가운은 어딘가 수상쩍은 자세로 벽에 걸려 있었다. 창고방도 평소와 같았다. 낡은 난로 가리개, 낡은 구두, 생선 바구니 두 개, 다리가 세 개인 세면대, 그리고 부지깽이 하나가 있었다.

흡족한 기분으로 스크루지는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평소와 달리 두 번이나 잠갔다. 이렇게 해 두면 누가 불시에 들이닥칠 염려가 없었다. 그는 목도리를 풀고, 가운과 슬리퍼, 잠자리 모자를 차례로 갖춰 입은 뒤, 죽을 먹으려고 난롯가에 앉았다.

그건 정말 아주 약한 불이었다. 이토록 매서운 밤에 그 정도 불로는 아무것도 데워지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그 한 줌 땔감에서 온기를 조금이라도 얻어 내려고 불 가까이 바짝 붙어 앉아 골똘히 들여다봐야 했다. 벽난로는 오래전 어떤 네덜란드 상인이 지은 것으로, 둘레 전체가 성경의 장면을 그려 넣은 특이한 네덜란드식 타일로 깔려 있었다. 거기에는 카인과 아벨, 파라오의 딸, 시바의 여왕, 깃털 이불처럼 생긴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천사들, 아브라함, 벨사살, 버터 그릇 같은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의 생각을 끌 만한 수백 개의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칠 년 전에 죽은 말리의 얼굴이 옛 예언자의 지팡이처럼 나타나

그 모든 그림을 삼켜 버렸다. 매끈한 타일 하나하나가 처음엔 백지여서 흩어진 생각의 조각으로 그 표면에 그림을 그릴 힘이 있었다면, 타일마다 늙은 말리의 얼굴이 그려졌을 것이다.

"허튼소리!" 스크루지가 말하고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몇 바퀴를 돌고 난 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머리를 젖히는데 그의 눈길이 우연히 방 안에 걸린 종에 머물렀다. 이제는 쓰이지 않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잊힌 어떤 용도로 건물 맨 위층의 방과 이어져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사이 그 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엄청난 놀라움과 함께 까닭 모를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너무 살며시 흔들려서 거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종은 크게 울리기 시작했고, 집 안의 모든 종이 함께 울렸다.

이 소동은 삼십 초쯤, 어쩌면 일 분쯤 이어졌을 테지만 스크루지에게는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종들은 울리기 시작할 때처럼 한꺼번에 멎었다. 그러자 아래층 깊은 곳에서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포도주 상인의 지하 창고에서 술통 위로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 스크루지는 유령이 나온다는 집에서 유령들이 쇠사슬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지하실 문이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뒤로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왔다. 아래층 바닥을 지나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이윽고 곧장 스크루지의 방문을 향해 다가왔다.

"아직도 허튼소리야!" 스크루지가 말했다.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유령이 멈추는 기색도 없이 두꺼운 문을 통과해 스크루지의 눈앞에서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유령이 들어서는 순간 꺼져 가던 불꽃이 마치 "나는 그를 안다, 말리의 유령이다!" 하고 외치듯 불쑥 솟아올랐다가, 다시 힘없이 가라앉았다.

똑같은 얼굴, 그야말로 똑같은 얼굴이었다. 땋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늘 입던 조끼에 타이츠와 장화 차림을 한 말리였다. 장화의 술 장식은 땋은 머리나 코트 자락,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곤두서 있었다. 그가 끌고 있는 쇠사슬은 허리에 칭칭 감겨 있었다. 쇠사슬은 길었고, 꼬리처럼 그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유심히 살펴보니 그 사슬은 금고, 열쇠, 자물쇠, 장부, 증서와 쇠로 만든 묵직한 돈주머니가 엮여 있는 것이었다. 유령의 몸은 투명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말리를 살펴보니, 조끼 너머로 등 쪽 코트에 달린 단추 두 개가 보였다.

스크루지는 말리에게 창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말을 믿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도 믿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령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눈앞에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죽은 듯 차가운 눈에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도 느꼈고, 머리와 턱을 둘러 묶은 접힌 손수건의 질감까지 알아보았다. 그 천은 전에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믿지 못했고, 자신의 감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스크루지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많지!" 말리의 목소리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누구냐?"

"내가 누구였는지를 물어봐라."

"그럼 넌 누구였는데?" 스크루지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귀신치고는 까다롭군." 그는 '귀신같이 까다롭군'이라고 말하려다가, 이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바꿔 말했다.

"살아 있을 때 나는 네 동업자, 제이컵 말리였다."

“앉을 수…… 앉을 수 있냐?” 스크루지가 그를 미심쩍게 바라보며 물었다.

“앉을 수 있다.”

“그럼 앉아 봐라.”

스크루지는 이렇게 물었다. 이토록 투명한 유령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곤란한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느꼈다. 그러나 유령은 마치 늘 그래 왔다는 듯이 벽난로 건너편에 앉았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구나.” 유령이 말했다.

“난 안 믿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가 진짜라는 증거로, 네 감각 말고 무엇을 더 바라느냐?”

“모르겠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감각을 왜 의심하는 게냐?”

“왜냐하면,” 스크루지가 말했다. “사소한 것도 감각에는 영향을 주거든. 위장이 조금만 탈이 나도 감각은 사기꾼이 된다고. 너는 소화되지 않은 쇠고기 조각일 수도 있고, 겨자

한 점일 수도, 치즈 부스러기일 수도, 덜 익은 감자 한 쪽일 수도 있어. 네가 무엇이든, 너한테선 무덤 냄새보다 고기 국물 냄새가 더 나는구나!"

스크루지는 농담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고, 마음속으로도 그 순간 익살스러운 기분은 조금도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공포를 눌러 두려고 재치를 부려 본 것이었다. 유령의 목소리가 그의 뼛속 골수까지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고정된 유리 같은 두 눈을 말없이 가만히 마주하고 있자니, 스크루지는 그것이 자기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다고 느꼈다. 유령이 자기만의 지옥 같은 기운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도 몹시 섬뜩했다. 스크루지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분명 그랬다. 유령은 완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 머리카락과 옷자락과 술 장식은 마치 화덕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에 흔들리듯 여전히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쑤시개 보이지?" 스크루지는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곧바로 다시 말을 꺼냈다. 유령의 돌처럼 굳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잠깐만이라도 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인다." 유령이 대답했다.

“보고 있지 않잖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래도 내게는 보인다.” 유령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좋아!” 스크루지가 받아쳤다. “그럼 나는 이걸 삼키기만 하면 되겠군. 그러고 나면 남은 생애 동안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도깨비 떼한테 시달리게 되겠지. 허튼소리라니까! 허튼소리야!”

그러자 유령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쇠사슬을 흔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음산하고 섬뜩한지 스크루지는 기절해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를 꽉 붙잡아야 했다. 그런데 유령이 머리에 감고 있던 붕대를 벗는 순간 스크루지의 공포는 더 커졌다. 실내에서 쓰기에는 너무 더운 듯이 붕대를 풀자, 턱뼈가 아래로 툭 떨어져 가슴 위로 늘어진 것이다.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자비를 베풀어 다오!” 그가 말했다. “무서운 유령이여, 왜 나를 괴롭히는 거냐?”

“세상일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이여!” 유령이 대답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믿어야지. 그런데 유령들은 왜 이 땅을 떠도는 거지? 그리고 왜 하필 나를 찾아오는 거냐?”

“모든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유령이 대답했다. “그 사람 안의 영혼은 살아 있는 동안 동료 인간들 사이를 거닐며 넓고 멀리 돌아다녀야 한다. 살아서 그렇게 나서지 않은 영혼은 죽은 뒤에 그래야만 하는 벌을 받는다. 그 영혼은 세상을 떠돌도록 운명 지어지지. 아, 원통하구나! 이제는 자기가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나눌 수 있었고,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들을 말이야!”

유령은 다시 울부짖으며 쇠사슬을 흔들고 그림자 같은 두 손을 비틀었다.

“너는 쇠사슬에 묶여 있구나.” 스크루지가 떨면서 말했다. “왜 그런 거지? 말해 다오.”

“내가 살아생전에 만든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이다.” 유령이 대답했다. “한 고리씩, 한 발씩 내가 직접 이어 만들었지. 내 뜻으로 몸에 둘렀고, 내 뜻으로 지금까지 차고 있는 것이다. 그 모양이 낯설게 느껴지느냐?”

스크루지는 점점 더 떨었다.

“아니면 네가 직접 짊어진 그 튼튼한 사슬의 무게와 길이를 알고 싶은 게냐?” 유령이 말을 이었다. “칠 년 전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이것만큼이나 무겁고 길었다. 그 뒤로 너는 줄곧 그걸 만들어 왔지. 참으로 육중한 사슬이로다!”

스크루지는 마루 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쉰 길이나 예순 길쯤 되는 쇠사슬에 둘러싸여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이컵,” 그가 애원하듯 말했다. “늙은 제이컵 말리, 더 말해 다오. 나를 위로해 다오, 제이컵!”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유령이 대답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이며, 에비니저 스크루지, 다른 사명을 띤 다른 존재들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말해 주고 싶은 것을 다 말해 줄 수도 없어. 내게 허락된 것은 아주 조금뿐이야. 나는 쉴 수도, 머물 수도, 어디에서도 꾸물거릴 수도 없어. 내 영혼은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사무소 밖을 한 번도 떠돌지 않았지. 내 말을 새겨들어라! 살아생전 내 영혼은 우리 환전소라는 좁은 굴을 벗어나 헤맨 적이 없었어. 그러니 이제 내 앞에는 고단한 여행길만 놓여 있다!”

스크루지는 생각에 잠기면 늘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는 버릇이 있었다. 유령의 말을 곱씹으며 그는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눈을 들지도 무릎을 펴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제이컵, 너는 그 일을 아주 굼뜨게 해 왔던 모양이군.” 스크루지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다만 목소리에는 겸손과 존경이 배어 있었다.

“굼뜨다니!” 유령이 되풀이했다.

“칠 년이나 죽어 있었다니,” 스크루지가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줄곧 떠돌아다녔단 말이지!”

“줄곧 그랬지,” 유령이 말했다. “쉴 틈도, 평안도 없었다. 끊임없는 자책의 고문이었지.”

“빨리 다니는 거냐?” 스크루지가 말했다.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지.” 유령이 대답했다.

“칠 년 동안이면 땅을 꽤 많이 가로질렀겠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은 이 말을 듣자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더니, 밤의 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쇠사슬을 어찌나 끔찍하게 덜컥거렸는지, 이 구역 당국이 유령을 소란죄로 기소했더라도 정당했을 것이다.

"오! 사슬에 묶이고, 이중으로 족쇄를 찬 포로 신세로구나!" 유령이 외쳤다. "알지 못하다니! 이 지상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불멸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애써 일해야 한다는 것을. 그 지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善)이 모두 펼쳐지기까지 말이다. 알지 못하다니! 어떤 기독교도의 영혼이든 자기 작은 영역에서 선하게 일한다면, 그 필멸의 삶은 그가 베풀 수 있는 거대한 힘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니! 한 생에 주어진 기회를 잘못 쓴 것은, 아무리 긴 후회의 세월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러했다! 오! 내가 바로 그러했다!"

"하지만 너는 언제나 훌륭한 사업가였지, 제이컵." 스크루지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이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 보기 시작했다.

“사업이라고!” 유령이 다시 두 손을 비틀며 외쳤다. “인류가 나의 사업이었다. 공동의 복지가 나의 사업이었어. 자선과 자비, 관용과 선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사업이었다. 내 장사의 거래는 내 사업이라는 드넓은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았지!”

유령은 팔을 쭉 뻗어 쇠사슬을 쳐들었다. 마치 그 쇠사슬이 헛된 슬픔의 모든 원인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러고는 그것을 무겁게 다시 바닥에 내던졌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맘때가 되면,” 유령이 말했다. “내가 가장 괴롭다. 어째서 나는 눈을 내리깔고 동료 인간들 사이를 걸으며, 현자들을 가난한 거처로 이끌었던 저 축복받은 별을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가! 그 빛이 나를 이끌어 주었을 가난한 집이 한 곳도 없었단 말인가!”

스크루지는 유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으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내 말을 들어라!” 유령이 외쳤다. “내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

“듣겠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말을 거창하게 꾸미지 마, 제이컵! 제발 부탁이다!”

“내가 어떻게 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났는지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수많은 날을 네 곁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반가운 생각이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몸을 떨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것도 내 고행에서 작지 않은 부분이지.” 유령이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밤 너에게 경고하러 왔다. 너에게는 아직 내 운명을 피할 기회와 희망이 남아 있다. 그 기회와 희망은 내가 애써 마련해 둔 것이다, 에비니저.”

“너는 늘 나에게 좋은 친구였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고맙다!”

“너는 세 유령에게 시달리게 될 거야.” 유령이 말을 이었다.

스크루지의 얼굴은 아까 유령의 얼굴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아래로 축 처졌다.

“제이컵, 방금 말한 그 기회와 희망이 이것이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그렇다.”

“난 —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들의 방문 없이는,” 유령이 말했다. “너는 내가 걷는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첫 번째 방문을 기다려라. 종이 한 시를 칠 때다.”

“한꺼번에 다 만나고 끝내 버리면 안 될까, 제이컵?”
스크루지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두 번째 유령은 그다음 날 밤 같은 시각에 올 거다. 세 번째는 또 그다음 날 밤, 열두 시를 치는 마지막 종소리가 멎을 때 올 거야. 이제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도록 해라!”

유령은 이 말을 마치자, 아까처럼 탁자 위에서 천을 집어 머리에 다시 둘러 감았다. 붕대에 턱이 묶이면서 이가 딱 맞부딪치는 소리가 나자, 스크루지는 그것으로 유령이 천을 감았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시 조심스레 눈을 들었다. 초자연적인 방문객은 몸을 곧게 세운 채 그와 마주 서 있었고, 쇠사슬은 방문객의 팔에 칭칭 감겨 있었다.

유령은 그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창문이 조금씩 저절로 올라가서, 유령이 창가에 닿았을 때는 창이 활짝 열려 있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스크루지는 그대로 따랐다. 둘 사이가 두 걸음 거리로 가까워지자 말리의 유령은 손을 들어 더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스크루지는 걸음을 멈췄다.

복종해서라기보다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유령이 손을 들자 공기 속에서 뒤섞인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탄식과 후회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프고 스스로를 탓하는 울부짖음이었다. 유령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그 구슬픈 만가에 함께 섞여 들었고, 황량하고 어두운 밤 속으로 떠 올라 사라졌다.

스크루지는 창가로 따라갔다. 호기심에 몸이 달아 있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공중은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령들은 안절부절못하며 이리저리 허둥지둥 떠돌아다녔고, 가면서 신음 소리를 냈다.
그들 모두가 말리의 유령과 같은 사슬을 차고 있었다.
몇몇은(어쩌면 죄지은 정부들일지도 모른다) 서로 이어져 있었고, 자유로운 유령은 하나도 없었다. 그중 많은 수가 살아생전 스크루지가 직접 알던 자들이었다. 그는 흰 조끼를 입은 늙은 유령 하나와 꽤 친분이 있었다. 그 유령의 발목에는 엄청나게 큰 쇠 금고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유령은 아래쪽 문간에 있는 아기 딸린 가엾은 여인을 내려다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다며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그들 모두가 비참한 까닭은 분명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일에 선을 위해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럴 힘을 영영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 존재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안개가 그들을 감싼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유령 같은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고, 밤은 스크루지가 집으로 걸어오던 때의 밤으로 돌아갔다.

스크루지는 창문을 닫고, 유령이 들어왔던 문을 살펴보았다. 그가 손수 잠근 그대로 두 겹으로 잠겨 있었고, 빗장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그는 "허튼소리!"라고 말하려 했지만 첫 음절에서 말이 막혔다. 그는 겪은 감정 때문인지, 하루의 피로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깐 엿보았기 때문인지, 유령의 지루한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몹시 쉬어야 할 상태였다. 그래서 옷도 벗지 않고 곧장 침대에 누웠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제2장

세 유령 중 첫째 유령



존 리치, 「페지윅 씨의 무도회」(1843년 초판 권두 삽화)

스크루지가 잠에서 깼을 때 주위는 너무 어두워서, 침대에서 내다보아도 투명한 창문과 방의 불투명한 벽을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는 족제비 같은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보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웃 교회의 종이 십오 분 종을 네 번 모두 울렸다. 그래서 그는 몇 시인지 알려 주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다.

놀랍게도 육중한 종은 여섯에서 일곱으로, 일곱에서 여덟으로 계속 울리더니 규칙적으로 열두 시까지 울렸다. 그러고는 멈추었다. 열두 시라니! 그가 잠자리에 든 것은 두 시가 지나서였다. 시계가 잘못된 것이다. 고드름이 기계 속으로 들어갔음이 틀림없었다. 열두 시라니!

그는 이 터무니없는 시계를 바로잡으려고 회중시계의 용수철을 눌렀다. 그 작고 빠른 맥박이 열두 번을 치고는 멈추었다.

"이럴 수가 있나,"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루를 꼬박 자고 다음 날 밤 깊도록 잤을 리가 없어. 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이 낮 열두 시일 리도 없고!"

이 생각이 몹시 놀라웠기에, 그는 허겁지겁 침대에서 빠져나와 더듬더듬 창가로 갔다. 무엇이든 보려면 잠옷 소매로 성에를 문질러 닦아야 했고, 그래도 보이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곤 안개가 여전히 짙고 몹시 춥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법석을 떠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밤이 밝은 낮을 몰아내고 세상을 차지했다면 분명 그런 소란이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것은 큰 안도였다. 만약 셀 날이 없다면 "이 환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삼 일 후 에비니저 스크루지 씨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문구 같은 것은 그저 미합중국 채권이나 다름없게 되었을 테니까.

스크루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리저리 되짚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그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말리의 유령은 그를 몹시 괴롭혔다. 충분히 따져 본 끝에 그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릴 때마다, 그의 생각은 마치 눌렀다 놓은 강한 용수철처럼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야 하는 상태로 그를 몰아넣었다. "그것이 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스크루지는 종이 십오 분 종을 세 번 더 칠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종이 한 시를 칠 때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유령이 경고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그

시각이 지나갈 때까지 깨어 있기로 결심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만큼이나 잠에 들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간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는 두 번 세 번 자기도 모르게 꾸벅 졸다가 시계 소리를 놓친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다. 마침내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댕, 동!"

"십오 분이다." 스크루지가 세면서 말했다.

"댕, 동!"

"삼십 분이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댕, 동!"

"십오 분 전이로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댕, 동!"

"정각이다." 스크루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잖아!"

그는 정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종은 그때 깊고, 둔하고, 속이 빈 듯, 구슬픈 소리로 “한 번” 울렸다. 그 순간 방 안에 빛이 번쩍 일더니, 침대의 커튼이 젖혀졌다.

내가 말해 두지만, 침대의 커튼이 어떤 손에 의해 옆으로 젖혀졌다. 발치의 커튼도 등 쪽의 커튼도 아니고, 그의 얼굴이 향해 있던 쪽의 커튼이었다. 침대 커튼이 옆으로 젖혀지자, 스크루지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반쯤 기댄 자세가 되었고, 커튼을 젖힌 그 세상 것이 아닌 방문객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만큼이나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마음만은 여러분 바로 곁에 서 있다.

그것은 기이한 모습이었다.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어린아이라기보다는 노인에 더 가까웠다. 어떤 초자연적인 매개를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시야에서 물러나 어린아이의 크기로 줄어든 듯한 모습이었다. 목과 등 아래로 늘어진 머리카락은 나이가 든 것처럼 하얬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피부에는 더없이 부드러운 윤기가 돌았다. 팔은 아주 길고 근육질이었으며, 손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 손아귀의 힘이 보통이 아닌 듯했다. 다리와 발은 매우 섬세하게 생겼고, 팔과 마찬가지로 맨살이었다. 순백의 튜닉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광택이

흐르는 띠가 둘려 있었는데, 그 빛이 아름다웠다. 손에는 싱싱한 초록빛 호랑가시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겨울의 상징과 기이하게 어긋나게도, 옷에는 여름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밝고 맑은 빛줄기가 솟아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빛 덕분에 이 모든 것이 보였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때문에, 이 존재는 덜 밝은 순간에는 커다란 촛불 끄개를 모자로 썼을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팔 밑에 끼고 있었다.

그러나 스크루지가 점점 더 찬찬히 바라보니, 이것조차 가장 기이한 특징은 아니었다. 허리띠가 이쪽에서는 반짝이고 저쪽에서는 번쩍이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빛이던 것이 다른 순간에는 어둠이 되었다. 그처럼 형체 자체도 뚜렷함이 흔들렸다. 어떤 때는 팔이 하나인 것이었다가, 어떤 때는 다리가 하나인 것, 어떤 때는 다리가 스무 개인 것, 또 어떤 때는 머리 없이 다리 한 쌍만 있는 것, 몸뚱이 없이 머리만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흩어졌다 사라지는 부분들은, 그것들이 녹아드는 짙은 어둠 속에서는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움 속에서 그것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뚜렷하고 맑게.

"제게 오시리라고 예고된 그 유령이십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유난히 낮았는데, 마치 바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누구시며, 무엇이십니까?" 스크루지가 다그쳤다.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먼 과거 말입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의 난쟁이 같은 키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아니. 너의 과거다."

아마 스크루지도 누군가 묻는다면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모자를 쓴 유령의 모습이 유난히 보고 싶었고, 그래서 유령에게 모자를 쓰라고 간청했다.

"뭐라고!" 유령이 소리쳤다. "내가 주는 빛을 속된 손으로 그렇게 서둘러 꺼 버리려 하느냐? 이 모자를 만든 것이 바로 너 같은 자들의 욕망이었고, 그 때문에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모자를 이마까지 눌러쓰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냐!"

스크루지는 유령의 기분을 상하게 할 뜻은 전혀 없었고, 살아오면서 어느 때에도 고의로 유령에게 "모자를 씌운" 기억도 없다고 공손히 해명했다. 그런 다음 용기를 내어 유령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너의 안녕을 위해서다!"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고맙다는 뜻을 표했지만, 방해받지 않고 편히 자는 밤이 그 목적에는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유령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곧바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의 회개를 위해서다. 명심해라!"

그렇게 말하며 유령은 힘센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스크루지가 날씨와 시각이 산책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해 봐야 소용없었을 것이다. 침대는 따뜻했고 온도계는 영하로 한참 내려가 있었으며, 그는 슬리퍼와 가운과 잠잘 때 쓰는 모자 차림으로 가볍게 입은 데다 그때 이미 감기에 걸려

있었다. 그 손길은 여자의 손처럼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령이 창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간청하듯 유령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저는 한낱 인간이라서," 스크루지가 항의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 손이 닿는 것만 견뎌라," 유령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일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벽을 지나 탁 트인 시골길 위에 서 있었다. 양쪽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둠과 안개도 도시와 함께 사라졌다. 눈이 쌓인 땅 위로 맑고 차가운 겨울날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스크루지는 두 손을 맞잡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유령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 손길은 가볍고 순식간이었지만, 노인의 감각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듯했다. 그는 공기 속에 떠도는 수천 가지 냄새를 의식했는데, 그 냄새 하나하나는 오래고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수천 가지 생각과 희망과 기쁨과 근심에 이어져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구나.” 유령이 말했다. “뺨 위에 있는 건 무엇이냐?”

스크루지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그것은 뾰루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유령에게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했다.

“길은 기억하지?” 하고 유령이 물었다.

“기억하고말고요!” 스크루지가 열렬히 외쳤다. “눈을 가리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동안 잊고 있었다니 이상하구나!” 유령이 말했다. “이제 계속 가자.”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고, 스크루지는 지나치는 문마다, 말뚝마다, 나무마다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그러다 멀리 작은 장터 마을이 나타났는데, 다리와 교회와 굽이쳐 흐르는 강이 보였다. 이윽고 등에 소년들을 태운 털북숭이 조랑말들이 그들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소년들은 농부들이 모는 시골 이륜마차와 수레에 탄 다른 소년들을 불러댔다. 이 소년들은 모두 신이 나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넓은 들판은 이내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차서, 상쾌한 공기마저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이것들은 그저 지난날 일어났던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유령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명랑한 나그네들이 다가왔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스크루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다. 그들을 보고 그가 한없이 기뻐했던 것은 왜일까! 그들이 지나갈 때 그의 차가운 눈이 반짝이고 심장이 뛰었던 것은 왜일까! 그들이 갈림길과 샛길에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은 왜일까! 스크루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따위는 꺼져 버려라! 그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단 말인가?

"학교에는 아직 완전히 사람이 없지는 않다," 유령이 말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아이 하나가 아직 거기 남아 있다."

스크루지는 그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흐느껴 울었다.

그들은 눈에 익은 샛길로 큰길을 벗어났고, 곧 칙칙한 붉은 벽돌로 지은 저택에 다다랐다. 지붕 위에는 작은 풍향계가 얹힌 누각이 있었고, 그 안에 종이 매달려 있었다. 큰 집이긴 했지만 가세가 기운 집이었다. 넓은 부속 건물들은 거의

쓰이지 않아 벽은 축축하고 이끼가 끼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대문은 썩어 있었다. 마구간에서는 닭들이 꼬꼬거리며 뽐내듯 걸어 다녔고, 마차 창고와 헛간에는 풀이 무성했다. 안도 옛 모습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음산한 현관에 들어서서 열린 문틈으로 여러 방을 들여다보니, 가구는 빈약했고, 방은 썰렁했으며, 공간은 텅 비어 넓었다. 공기에서는 흙냄새가 났고, 집 안에는 차가운 황량함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촛불을 켜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생활, 그리고 먹을 것은 넉넉지 않은 생활과 어딘지 모르게 이어져 있는 듯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홀을 지나 집 뒤편의 한 문 앞으로 갔다. 문이 그들 앞에서 열리자, 길고 텅 비고 쓸쓸한 방이 드러났다. 맨 소나무로 짠 긴 의자와 책상들이 줄지어 있어 방은 더욱 황량해 보였다. 그 가운데 한 책상에서 외로운 소년 하나가 힘없이 타는 난로 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긴 의자에 털썩 앉아, 잊힌 채 지내던 가엾은 옛 제 모습을 보며 울었다.

집 안에 숨은 희미한 메아리 하나도, 판자벽 뒤 쥐들이 찍찍거리거나 부스럭대는 소리도, 뒤편 칙칙한 마당에 반쯤 녹은 물받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도, 잎 하나 없는 가지들 사이에서 낙심한 포플러 한 그루가 내쉬는 한숨

소리도, 빈 창고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무심한
삐걱거림도, 아니, 난로에서 나는 딱딱 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스크루지의 가슴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그의 눈물이 더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유령이 그의 팔을 건드리고는, 책을 읽는 데 빠져 있는 어린
시절의 그를 가리켰다. 그때 이국풍 옷차림을 한 한 남자가
갑자기 창밖에 나타났다. 놀랍도록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그는 허리띠에 도끼를 꽂은 채, 장작을 잔뜩 실은
당나귀의 굴레를 잡고 서 있었다.

"저건 알리바바잖아!" 스크루지가 황홀해하며 외쳤다.
"정직한 우리 알리바바! 그래, 그래, 알지! 크리스마스 무렵
저기 저 외로운 아이 혼자 여기 남겨졌을 때, 저 사람이
처음으로 저렇게 찾아왔었지. 불쌍한 녀석! 그리고
밸런타인,"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거친 형제
오슨. 저기 가는군! 그리고 속옷 바람으로 잠든 채
다마스쿠스의 성문 앞에 놓였던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였더라.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정령들에게 거꾸로 뒤집힌 술탄의
마부도 있네. 저기 머리로 서 있어! 꼴좋다. 잘됐어. 그 사람이
공주와 결혼할 일이 뭐가 있었담!"

웃음과 울음 사이의 기묘한 목소리로 스크루지가 이런 주제에 자신의 모든 진지함을 쏟아붓는 모습을, 그리고 그의 상기되고 들뜬 얼굴을 보았다면, 시내에서 그와 거래하던 친구들은 정말로 놀랐을 것이다.

"저기 앵무새다!" 스크루지가 외쳤다. "초록 몸뚱이에 노란 꼬리, 머리 꼭대기에서 상추 같은 게 자라난 녀석! 저기 있구나! 가엾은 로빈 크루소, 그렇게 불렀지, 섬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말이야. '가엾은 로빈 크루소, 어디 갔다 왔니, 로빈 크루소?' 그 남자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지만, 꿈이 아니었지. 앵무새였답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프라이데이가 목숨을 걸고 작은 개울 쪽으로 달려간다! 이봐! 후프! 할로!"

그러고 나서 평소의 그답지 않게 재빨리 마음을 바꿔, 옛날의 자신이 가여워 "가엾은 아이!"라고 말하며 다시 울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스크루지가 중얼거리며 소맷부리로 눈물을 닦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무슨 일이냐?"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젯밤 우리 집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도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을 뿐입니다."

유령은 생각에 잠긴 듯 미소를 짓더니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자!"

스크루지의 옛 모습은 그 말에 따라 점점 커졌고, 방은 조금 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졌다. 패널은 줄어들었고 창문은 금이 갔다. 천장에서는 회반죽 조각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욋가지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스크루지도 여러분만큼이나 알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이것이 전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즐거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또다시 혼자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절망에 잠겨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구슬프게 저으며 불안한 눈길로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문이 열리더니, 소년보다 훨씬 어린 여자아이가 쏜살같이 뛰어 들어와 그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며 그를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오빠"라고 불렀다.

"내가 오빠를 집에 데리러 왔어, 사랑하는 오빠!" 아이가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몸을 숙이고 웃으면서 말했다. "집에 데려가려고,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가자고, 꼬마 팬?" 소년이 되물었다.

"응!" 아이는 기쁨이 넘쳐 소리쳤다. "집으로, 영영 집으로. 언제까지나 집으로!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셨어. 그래서 집이 천국 같아. 어느 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오빠가 집에 와도 되냐고 겁내지 않고 한 번 더 여쭤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를 마차에 태워 오빠를 데리러 보내셨지. 그리고 오빠는 어른이 될 거래!"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이었다. "이제 여기 다시는 안 와도 돼. 하지만 먼저 크리스마스 내내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너 정말 다 큰 숙녀가 됐구나, 꼬마 팬!" 소년이 외쳤다.

그녀는 손뼉을 치며 웃고는 그의 머리에 손을 대 보려 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 닿지 않자 다시 웃으며 발끝을 세우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더니 어린아이다운 조바심에 그를 문 쪽으로 잡아끌기 시작했고, 그는 가기 싫은 기색도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홀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외쳤다. "스크루지 도련님의 상자를 가지고 내려오너라!" 그러자 교장 선생이 직접 홀에 나타나 스크루지를 사납게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굴었고, 악수까지 해서 그를 끔찍한 기분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그와 누이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응접실로 데려갔다. 벽에 걸린 지도와 창가의 천구의와 지구의는 추위에 얼어 밀랍처럼 굳어 있었다. 교장은 이상하리만큼 맛없이 가벼운 포도주 한 병과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케이크 한 덩이를 내와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다. 동시에 말라깽이 하인을 밖으로 내보내 마부에게도 "무언가"를 한 잔 권하게 했는데, 마부는 신사분께 고맙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맛본 그 술통에서 나온 거라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 그 무렵 스크루지의 상자도 마차 지붕 위에 단단히 묶였고, 아이들은 아주 기쁘게 교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타 정원의 자갈길을 신나게 달려 내려갔다. 빠르게 도는 바퀴가 상록수의 짙은 잎사귀에서 서리와 눈을 튀기며 물보라처럼 흩뿌렸다.

"언제나 연약한 아이였지. 입김 한 번에도 시들어 버릴 것 같은 아이였어." 유령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넓었지!"

"그렇고말고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옳은 말씀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유령이여. 당치도 않지요!"

"그녀는 어른이 되어 죽었다." 유령이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게다, 내 생각에는."

"아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맞다." 유령이 말했다. "네 조카 말이다!"

스크루지는 마음이 불편한 듯 짧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방금 학교를 뒤로하고 나왔을 뿐이었지만, 이제 어느 도시의 번잡한 큰길에 들어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그림자 같은 행인들이 오가고, 그림자 같은 짐수레와 마차들이 길을 두고 다투었으며, 진짜 도시가 지닌 모든 소란과 북적임이 펼쳐져 있었다. 가게들의 치장을 보니 여기도 다시 크리스마스 철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다만 지금은 저녁이라 거리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유령은 어떤 창고의 문 앞에 멈춰 서서, 스크루지에게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다마다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제가 여기서 도제 생활을 했는걸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높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노신사가 보였다. 웨일스식 가발을 쓴 그 사람은 키가 두 인치만 더 컸어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을 법했다. 그를 보자 스크루지는 몹시 흥분해서 외쳤다.

“아니, 페지윅 영감이잖아! 그 착한 양반, 살아 돌아왔구나!”

늙은 페지윅은 펜을 내려놓고 일곱 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두 손을 비볐고, 넉넉한 조끼를 매만졌으며, 구두에서부터 자비심이 깃든다는 정수리까지 온몸으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푸근하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유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에비니저! 딕!”

예전의 스크루지, 이제는 다 큰 청년이 된 그가 동료 도제와 함께 활기차게 들어왔다.

“물론 딕 윌킨스로군요!”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말했다. “세상에, 맞아요. 저기 있군요. 딕은 저를 무척 따랐지요. 가엾은 딕! 아이고, 아이고!”

"여어, 얘들아!" 페지윅이 말했다. "오늘 밤은 더 일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이브야, 딕. 크리스마스다, 에비니저! 덧문을 닫아라," 늙은 페지윅이 손뼉을 짝 치며 외쳤다. "사람이 '잭 로빈슨' 하고 말하기도 전에!"

그 두 녀석이 얼마나 신나게 달려들었는지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이다! 둘은 하나, 둘, 셋 하는 사이에 덧문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고, 넷, 다섯, 여섯 하는 사이에 덧문을 제자리에 달았고, 일곱, 여덟, 아홉 하는 사이에 빗장을 지르고 핀을 꽂았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열둘까지 세기도 전에 경주마처럼 헐떡이며 돌아왔다.

"힐리호!" 늙은 페지윅이 소리치며 높은 책상에서 놀랄 만큼 날렵하게 뛰어내렸다. "자, 얘들아, 치워라! 여기 자리를 넓게 내자! 힐리호, 딕! 신나게 하자, 에비니저!"

치우라니! 늙은 페지윅이 지켜보고 있는 한, 그들이 치우지 못할 것도, 치우지 않을 것도 없었다. 일은 순식간에 끝났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영원히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기라도 하듯 치워졌다. 바닥은 쓸고 물을 뿌렸으며,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난로에는 땔감을 수북이 쌓았다. 창고는 겨울밤에 보고 싶을 만큼 아늑하고, 따뜻하고, 보송보송하고, 환한 무도회장이 되었다.

그러자 악보책을 든 바이올린 연주자가 들어와 높은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그곳을 오케스트라 자리로 삼고 오십 명이 한꺼번에 배탈이 난 듯한 소리로 악기를 조율했다. 이어서 페지윅 부인이 크고 든든한 미소를 짓고 들어왔다. 세 명의 페지윅 아가씨들이 환하게 빛나며 사랑스럽게 들어왔다. 아가씨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여섯 명의 젊은 구혼자들이 들어왔다.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젊은 남녀가 들어왔다. 하녀는 빵집을 하는 사촌과 함께 들어왔다. 요리사는 남동생의 각별한 친구인 우유 배달부와 함께 들어왔다. 길 건너에 사는 소년도 들어왔는데, 그는 주인에게서 밥을 충분히 얻어먹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한 집 건너 이웃에 사는 소녀 뒤에 몸을 숨기려 애썼는데, 그 소녀는 여주인에게 귀를 잡아당기는 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아이였다. 그들은 모두 차례차례 들어왔다. 어떤 이는 수줍게, 어떤 이는 대담하게, 어떤 이는 우아하게, 어떤 이는 어색하게, 어떤 이는 밀치며, 어떤 이는 끌어당기며 들어왔다. 그들은 제각기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스무 쌍이 한꺼번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을 반쯤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가운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정하게 어울리는 여러 단계의 짝을 지어 빙글빙글 돌았다. 이전의 맨 윗자리 한 쌍은 늘 엉뚱한 자리에 나타났고, 새로운 맨 윗자리 한 쌍은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발했다. 결국 모두가 맨 윗자리 짝이 되었는데, 그들을 도와줄 맨 아랫자리 짝은 한 쌍도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늙은 페지윅이 손뼉을 치며 춤을 멈추게 하고는 "잘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해 둔 포터 맥주 항아리에 뜨거운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쉬는 것을 마다하고, 그는 다시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연주를 이어 갔다. 아직 춤추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치 다른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쳐서 덧문에 실려 집으로 옮겨진 듯, 그리고 자신은 그를 까마득히 앞질러 이기든지 아니면 쓰러지겠다고 결심한 새로 온 연주자라도 된 듯이 말이다.

춤은 더 이어졌고, 벌칙 놀이도 있었고, 또 춤을 추었다. 케이크도 있었고, 네거스 술도 있었고, 큼직한 콜드 로스트 고기 한 덩이도 있었고, 큼직한 콜드 보일드 고기 한 덩이도 있었다. 민스파이도 있었고, 맥주도 넉넉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의 가장 큰 열기는 로스트와 보일드 요리가 나온 뒤에 찾아왔다. 그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 영리한 녀석이었다, 잘 들어 두라! 여러분이나 내가 일러 줄 수 있는 것보다 자기 일을 더 잘 아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 「로저 드 커벌리 경」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늙은 페지윅이 페지윅 부인과 함께 앞으로 나와 춤을 추었다. 그들이 맨 윗자리 짝이었다. 그들 앞에는 제법 힘든 춤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물세 쌍, 아니 스물네 쌍의 파트너가 있었고,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걷기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이, 기어이 춤을 추고야 말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두 배, 아니 네 배로 많았더라도, 늙은 페지윅은 그들을 능히 상대했을 것이고 페지윅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부인으로 말하자면, 그 말의 모든 뜻에서 그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보다 더 높은 칭찬이 있다면 말해 보라. 그렇다면 내가 그 말을 쓰겠다. 페지윅의 종아리에서는 분명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 종아리는 춤의 어느 대목에서든 달처럼 빛났다. 어느 순간에도 그 종아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늙은 페지윅과 페지윅 부인이 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즉 앞으로 나아갔다가 물러서고, 파트너와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무릎을 굽히고, 코르크따개 동작과 실 꿰기 동작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다 추고 나자, 페지윅은 뛰어올라 공중에서 두 발을 엇갈려 쳤다. 얼마나 재빠르게 쳤던지 다리로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다시 두 발로 착지했다.

시계가 열한 시를 치자 이 집안 무도회는 끝났다. 페지윅 씨와 페지윅 부인은 문의 양쪽에 각각 자리를 잡고, 나가는 사람마다 한 명씩 악수를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모두 돌아가고 두 견습생만 남자, 페지윅 부부는 그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했다. 그렇게 즐거운 목소리들이 차츰 잦아들었고, 소년들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잠자리는 뒷방 계산대 밑에 있었다.

이 시간 내내 스크루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 장면 속에, 과거의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즐겼으며, 이상할 만큼 격한 동요를 겪었다. 과거의 자신과 딕의 밝은 얼굴들이 그들 쪽에서 돌아선 지금에야 그는 유령을 떠올렸고, 그 유령이 머리 위의 빛을 아주 환하게 밝힌 채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소한 일이야," 유령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마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건."

"사소하다니요!" 스크루지가 되받았다.

유령은 그에게 두 견습생이 페지윅을 칭찬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소리를 들으라고 손짓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듣기를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아니란 말이냐? 그가 너희 세속의 돈으로 쓴 건 고작 몇 파운드, 어쩌면 서너 파운드뿐이다. 그 정도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큰돈이냐?"

"그게 아닙니다." 스크루지가 그 말에 발끈해서,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처럼 무심코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령이여. 그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가볍게도, 짐스럽게도 만들고, 즐거움이 되게도, 고역이 되게도 만들지요. 그 힘이 말과 눈빛에 있다고 칩시다. 너무 사소하고 하찮아서 더하거나 셈할 수조차 없는 것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가 주는 행복은 큰돈을 들인 것만큼이나 큽니다."

그는 유령의 눈길을 느끼고 말을 멈췄다.

"무슨 일이냐?" 유령이 물었다.

"별일 아닙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뭔가 있을 텐데?" 유령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서기에게 한두 마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스크루지가 그 소망을 입 밖에 내는 사이, 젊었을 적의 스크루지는 등불을 낮추었고,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탁 트인 바깥에 나란히 서 있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령이 말했다. "서둘러!"

이것은 스크루지에게 한 말도, 그가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한 말도 아니었지만,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스크루지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나이가 든 모습이었다. 한창때인 장년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훗날의 날카롭고 딱딱한 주름이 아직 없었지만, 걱정과 탐욕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눈에는 열망과 탐욕,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린 욕망을 보여 주었고, 자라나는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울 자리를 보여 주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상복을 입은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더더욱 대수롭지 않겠지요. 다른 우상이 나를 밀어냈지요. 내가 그러려고 애썼을 것처럼 그것이 앞으로 당신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슬퍼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우상이 당신을 밀어냈소?" 그가 되물었다.

"황금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한 처사란 말이오!" 그가 말했다. "세상이 가난만큼 가혹하게 구는 것은 없고, 부를 좇는 일만큼 엄하게 나무라는 척하는 것도 없소!"

"당신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의 다른 모든 희망은 세상의 천박한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나는 당신의 더 고결한 열망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지배적인 열정인 이득이 당신을 온통 사로잡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그가 되받았다. "내가 그만큼 훨씬 현명해졌다 칩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당신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변했단 말이오?"

"우리 약혼은 오래전에 한 거예요. 우리 둘 다 가난했고 그 가난에 만족하던 시절에 맺은 거지요. 좋은 때가 오면 참을성 있게 일해서 살림을 나아지게 하자는 약속이었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약혼할 때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는 어린애였소.” 그가 참을성 없이 말했다.

“당신 마음이 말해 주잖아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달랐다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였을 때는 행복을 약속해 주던 것이, 이제 둘로 나뉘고 나니 불행을 품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날카롭게 생각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언제 놓아 달라고 한 적이 있소?”

“말로는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죠.”

“그럼 무엇으로?”

“달라진 성품으로요.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전혀 다른 삶의 분위기로, 커다란 목표로 삼는 또 다른 희망으로요. 당신 눈에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값지게 해 주던 그 모든 것에서요.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그를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얻으려고 애썼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가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늘이 아시죠! 이런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자유로웠다면, 당신이 지참금 한 푼 없는 여자를 고를 거라고 나조차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와 가까워진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은 모든 것을 이익으로 저울질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설령 잠시나마 당신을 이끄는 단 하나의 원칙을 저버리고 그녀를 고른다 해도, 뒤따를 후회와 회한을 내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 당신을 놓아드리겠어요. 한때 당신이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요."

그는 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그에게서 돌린 채 말을 이어 갔다.

"당신은 — 지나간 일을 떠올리면 반쯤은 그러기를 바라게 되지만 — 이 일로 아픔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짧은 동안이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그 기억을 기꺼이 떨쳐 낼

거예요. 쓸모없는 꿈이었다고, 그 꿈에서 깨어난 것이 다행이었다고 여기면서요. 당신이 선택한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그녀는 그를 떠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말했다. "더 이상 보여 주지 마십시오!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십시오. 왜 저를 괴롭히는 걸 그리 즐기십니까?"

"그림자 하나만 더!" 유령이 소리쳤다.

"그만!" 스크루지가 외쳤다. "그만.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보여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차 없는 유령은 그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억지로 지켜보게 했다.

그들은 다른 장면,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그리 크지도 근사하지도 않지만 아늑함이 가득한 방이었다. 겨울 난로 곁에는 아까 본 소녀와 너무도 닮은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스크루지는 처음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맞은편에 앉은, 이제는 품위 있는 중년 부인이 된 그녀를 보고서야 그 젊은 여자가 그녀의 딸임을 깨달았다. 이 방 안은 그야말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흥분한 스크루지의 머리로는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시에 나오는 유명한 무리와 달리, 마흔 명의 아이들이 한 명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마흔 명처럼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는 듯했고, 오히려 어머니와 딸은 큰 소리로 웃으며 무척 즐거워했다. 딸도 곧 놀이에 섞여 들었는데, 그러자 어린 약탈자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그녀를 털어 갔다.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무엇인들 내놓지 않았겠는가! 물론 나는 결코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으리라. 아니, 아니다! 온 세상의 재물을 준다 해도 나는 저 땋은 머리를 짓이기거나 풀어 헤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귀여운 작은 신발을, 맙소사, 내 목숨을 건진다 해도 벗겨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 대담하고 어린 무리처럼 장난삼아 그녀의 허리를 재는 짓도 나는 할 수 없었으리라. 벌을 받아 내 팔이 그 허리에 영영 휘감겨 펴지지 않을 것만 같았을 테니까. 그런데도 고백하건대, 나는 그녀의 입술에 닿아 보고 싶었고, 그녀가 입을 열도록 무언가 묻고 싶었고, 내리깔린 눈꺼풀의 속눈썹을 바라보되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게 하고 싶었으며, 한 치만 잘라 가져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될 머리카락을

풀어 물결치게 하고 싶었다. 요컨대 나는, 솔직히 말해,
아이가 누리는 가장 가벼운 자유를 누리고 싶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알 만큼 어른다운 사람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는 바람에 웃음 띤 얼굴에 옷이 온통
헝클어진 그녀는 상기되고 소란스러운 무리의 한가운데에
휩쓸려 문 쪽으로 밀려갔다. 마침 아버지를 맞이하기에 딱
맞춘 때였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장난감과 선물을 잔뜩 든
짐꾼을 대동하고 집에 돌아온 참이었다. 그러자 고함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항할 길 없는 짐꾼을 향한 맹공격이
시작되었다! 의자를 사다리 삼아 그를 기어오르고, 주머니
속으로 뛰어들고, 갈색 종이 소포를 빼앗고, 넥타이를 꽉
붙들고, 목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고, 주체할 수 없는
애정에 겨워 다리를 발로 찼다! 꾸러미를 하나씩 풀 때마다
터져 나온 경탄과 환희의 함성! 아기가 인형용 프라이팬을
입에 넣으려는 현장을 들켰고, 나무 접시에 붙여 놓은 가짜
칠면조를 삼킨 게 거의 틀림없다는 끔찍한 발표! 그것이 헛된
경보였음을 알았을 때의 엄청난 안도감! 기쁨과 고마움과
황홀함!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말로 다 옮길 수 없다.
아이들과 그 감정이 차츰차츰 거실 밖으로 빠져나가,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가라앉았다고만 말해 두면 충분하다.

이제 스크루지는 전보다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집주인이 딸을 다정하게 기대게 한 채 자기 난롯가에 딸과 그 어머니와 함께 앉았을 때였다. 그리고 그 딸과 똑같이 우아하고 앞날이 창창한 또 한 아이가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 인생의 황폐한 겨울에 봄이 되어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자, 스크루지의 시야는 정말로 몹시 흐려졌다.

"벨,"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의 옛 친구를 봤어요."

"누구였어요?"

"맞혀 봐요!"

"어떻게 맞혀요? 쯧,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녀는 곧바로 이어 덧붙이며, 그가 웃는 것을 따라 웃었다. "스크루지 씨."

"스크루지 씨였어요. 그의 사무실 창문 앞을 지나가는데, 닫혀 있지 않았고 안에 촛불이 켜져 있어서 그를 안 볼 수가 없었죠. 그의 동업자가 지금 막 숨을 거둘 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 혼자 앉아 있더군요. 정말이지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사람이에요."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이곳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말했지, 이것들은 지나간 일들의 그림자라고," 유령이 말했다. "그것들이 본래 그런 모습인 건 내 탓이 아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스크루지가 외쳤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령에게 달려들었다. 유령의 얼굴을 보니, 기묘하게도 그동안 보여 준 모든 얼굴의 조각들이 그 얼굴 안에 섞여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과 맞붙어 씨름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도로 데려다주십시오. 더는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씨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만, 저항하는 기색이라곤 없는 유령이 상대의 어떤 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벌어진 그 실랑이에서, 스크루지는 유령의 빛이 높고 밝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빛이 자신을 휘어잡는 힘과 어렴풋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덮개를 움켜쥐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것을 유령의 머리 위에 내리눌렀다.

유령은 그 아래로 주저앉았고, 덮개가 유령의 온몸을 덮어 버렸다. 스크루지는 있는 힘을 다해 덮개를 내리눌렀지만, 빛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빛은 덮개 밑에서 끊임없는 흐름이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지쳤고 저항할 수 없는 졸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게다가 자신이 자기 침실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덮개를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가 손에서 힘을 풀었다. 그러고는 간신히 비틀거리며 침대로 갈 시간밖에 없었고, 곧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제3장

세 유령 중 둘째 유령



존 리치, 「스크루지의 세 번째 손님」 —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1843년 초판 삽화)

엄청나게 요란한 코골이 도중에 깨어난 스크루지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종이 다시 한 시를 치고 있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알맞은 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제이컵 말리의 주선으로 오게 된 두 번째 전령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새 유령이 침대의 어느 커튼을 젖힐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몸이 불편할 만큼 추워졌다. 그래서 커튼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전부 걷어 치웠다. 그러고 다시 누워서 침대 주위를 사방으로 날카롭게 살폈다. 유령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맞서고 싶었고, 허를 찔려 겁을 먹는 꼴은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유롭게 세상을 사는 신사들, 즉 이런저런 요령을 안다고 우쭐대며 대체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험에 얼마나 능한지를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동전 던지기 내기부터 살인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물론 꽤 넓고 포괄적인 영역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스크루지를 그렇게까지 대담한 사람으로 내세우지는 않겠다. 다만 그가 온갖 기이한 출현에 두루 대비하고 있었으며, 아기부터 코뿔소까지 그 사이의 무엇이 나타나도 그리 놀라지 않았으리라고는 여러분에게 믿어 달라고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거의 무엇에든 대비하고 있던 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일에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이 한 시를 치는데 아무 형체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오 분, 십 분, 십오 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계가 시각을 알리자 쏟아져 들어온 불그스레한 빛의 불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다. 그 빛은 그저 빛일 뿐이었기에 유령 열둘보다 더 섬뜩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는 자기가 바로 그 순간 자연 발화의 흥미로운 사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것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위안조차 없이 말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나 나라면 처음부터 떠올렸을 생각을 말이다. 곤경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알고 있고, 틀림없이 그것을 실행했을 테니까. 마침내 그는 이 유령 같은 빛의 근원과 비밀이 옆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빛을 더 따라가 보니 그곳에서 비쳐 나오는 것 같았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끌며 문으로 다가갔다.

스크루지가 손을 자물쇠에 대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그 말에 따랐다.

그것은 분명 그의 방이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방은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다. 벽과 천장은 살아 있는 초록빛으로 가득 뒤덮여 있어서 완벽한 숲처럼 보였고, 그 곳곳에서 반짝이는 붉은 열매들이 번쩍였다. 빳빳한 호랑가시나무와 겨우살이, 담쟁이덩굴의 잎사귀들이 빛을 반사했는데, 마치 작은 거울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굴뚝 위로는 거대한 불길이 으르렁거리며 치솟고 있었다. 스크루지의 시대에도, 말리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나간 수많은 겨울 동안에도, 그 음울하게 굳어 있던 벽난로는 이런 불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바닥에는 일종의 옥좌처럼 칠면조, 거위, 사냥감 고기, 가금류, 돼지 머릿고기, 커다란 고깃덩이, 젖먹이 새끼돼지, 길게 엮은 소시지 꾸러미, 민스파이, 건포도 푸딩, 굴이 든 통, 뜨겁게 구운 밤, 볼이 발그레한 사과, 즙이 흐르는 오렌지, 달콤한 배, 거대한 십이야 케이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펀치 사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맛있는 김에 방 안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이 옥좌 위에는 편안한 자세로 한 명의 유쾌한 거인이 앉아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찬란한 모습이었다. 그는 풍요의 뿔과 조금 닮은 모양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스크루지가 문틈으로 엿보며 다가오자 그 빛이 그에게 닿도록 횃불을 높이, 아주 높이 치켜들었다.

"들어와!" 유령이 외쳤다. "들어와! 그리고 나를 더 잘 알아보라고, 이 사람아!"

스크루지는 주춤거리며 들어가서, 이 유령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예전의 고집불통 스크루지가 아니었다. 유령의 눈은 맑고 다정했지만, 그는 그 눈을 마주하기가 싫었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유령이 말했다. "나를 보아라!"

스크루지는 공손하게 그렇게 했다. 유령은 흰 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단순한 초록색 긴 겉옷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 이 옷은 몸에 헐겁게 걸려 있어서 넓은 가슴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마치 어떤 장치로도 가리거나 감추는 것을 업신여기는 듯했다. 옷자락의 넉넉한 주름 아래로 보이는 발 역시 맨발이었고, 머리에는 여기저기 반짝이는 고드름을 박은 호랑가시나무 화관 말고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짙은 갈색 곱슬머리는 길고 자유로웠다. 그 자유로움은 다정한 얼굴, 반짝이는 눈, 활짝 편 손, 명랑한 목소리, 거침없는 태도, 그리고 즐거운 기운과 꼭 닮아 있었다. 허리에는 낡은 칼집이 매달려 있었지만 칼은 들어 있지 않았고, 그 오래된 칼집은 녹이 슬어 다 삭아 있었다.

"나 같은 존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유령이 외쳤다.

"한 번도 없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우리 집안의 젊은 식구들과 함께 걸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젊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요즘 태어난 나의 손위 형제들 말이다?" 유령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형제가 많으셨습니까, 유령이여?"

"천팔백 명이 넘는다," 유령이 말했다.

"부양할 식구가 어마어마하군!"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일어섰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순순히 말했다.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어젯밤에는 억지로 끌려다녔지만, 그 덕분에 지금도 제 안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제 것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내 옷자락을 잡아라!"

스크루지는 시키는 대로 옷자락을 붙잡고 단단히 쥐었다.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 빨간 열매, 담쟁이덩굴, 칠면조, 거위, 사냥감, 가금류, 돼지 머릿고기, 고기, 돼지, 소시지, 굴, 파이, 푸딩, 과일, 펀치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방도, 난로도, 불그스레한 빛도, 밤의 시각도 함께 사라졌고,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아침의 도시 거리에 서 있었다. 날씨가 몹시 사나웠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집 앞 보도의 눈을 긁어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거칠긴 해도 활기차고 제법 듣기 좋은 음악처럼 울렸다. 지붕 위에서도 눈을 치웠고, 그 눈이 아래 길바닥으로 털썩 떨어져 작은 인공 눈보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소년들은 더없이 신이 났다.

집들의 앞면은 꽤나 시커메 보였고, 창문은 그보다 더 검었다. 지붕 위에 매끄럽게 덮인 흰 눈과 대비되었고, 길바닥에 쌓인 더러운 눈과도 대비되었다. 길바닥의 눈은 수레와 짐마차의 무거운 바퀴에 깊은 고랑으로 파헤쳐져 있었는데, 큰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그 고랑들이 수백 번씩 엇갈리고 되풀이되며 복잡한 물길을 만들었다. 두껍고 누런 진흙탕과 얼음물 속에서는 그 물길을 따라가기도 어려웠다. 하늘은 침울했고, 짧은 골목길은 칙칙한 안개로 막혀 있었다. 반쯤 녹고 반쯤 얼어붙은 안개였는데, 무거운 알갱이들이 그을음 같은 작은 입자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영국 전역의

굴뚝들이 하나같이 불이 붙어, 저마다 속이 시원하도록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기후와 이 도시에는 명랑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거리에는 명랑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장 맑은 여름 공기와 가장 밝은 여름 햇빛이 그 기운을 퍼뜨리려 애쓴다 해도 헛수고였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은 쾌활하고 흥겨워 보였다. 난간 너머로 서로 소리쳐 부르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눈덩이를 주고받았다. 그 눈덩이는 말로 주고받는 숱한 농담보다 훨씬 악의 없는 무기였다. 맞으면 크게 웃고, 빗나가도 그에 못지않게 크게 웃었다. 가금류를 파는 가게는 아직 반쯤 문을 열어 두고 있었고, 과일 가게는 저마다 찬란한 영광에 싸여 있었다. 문가에는 통통한 배처럼 둥글고 커다란 밤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유쾌한 노신사의 조끼를 닮은 모양으로, 중풍이라도 걸릴 듯 풍성하게 넘쳐 나와 길가로 굴러떨어졌다. 불그레하고 갈색 얼굴을 한, 허리통이 넓은 스페인 양파도 있었다. 잘 자란 살집이 번들거려 스페인 수도사들처럼 보였고, 선반 위에서 아가씨들에게 짓궂게 윙크를 보냈다. 아가씨들은 지나가면서 매달아 둔 겨우살이를 새침하게 흘끗 쳐다보곤 했다. 배와 사과는 꽃이 핀 듯 높이 쌓여 피라미드를 이루었다. 포도송이는 가게 주인의 너그러움 덕분에 눈에 잘 띄는 갈고리에 걸려 늘어져 있었고,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짜로 입에 침이 고였다. 이끼가 낀 듯한 갈색 헤이즐넛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그 향기는 숲속을 걷던 오래전 산책과 시든 낙엽 위를 발목까지 빠지며 걷던 즐거운 발걸음을 떠올리게 했다. 땅딸막하고 거무스름한 노퍽 비핀 사과도 있었다. 그 사과들은 오렌지와 레몬의 노란빛을 돋보이게 했고, 즙 많은 몸통을 단단히 웅크린 채 종이봉투에 담아 집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 후에 먹어 달라고 간절히 졸라 대는 듯했다. 이 귀한 과일들 사이 그릇에 담긴 금붕어와 은붕어도, 피가 느리고 무던한 종족이기는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물고기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작은 세계를 따라 느리고 무덤덤하게 들뜬 채 숨을 헐떡이며 뱅뱅 돌았다.

식료품점! 아, 식료품점들! 문이 거의 다 닫혀 있었고, 덧문을 두 짝, 어쩌면 한 짝만 떼어 낸 채였다. 그러나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울이 계산대 위로 내려앉으며 흥겨운 소리를 내는 것도, 끈과 감개가 그렇게 시원스레 풀려 나오는 것도, 깡통들이 저글링 묘기처럼 위아래로 덜걱거리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그랬다. 차와 커피가 섞인 향기가 코를 얼마나 기분 좋게 간지럽혔는지, 건포도는 얼마나 풍성하고 훌륭했는지, 아몬드는 얼마나 새하얗고, 계피 막대는 얼마나 길고 곧았는지, 다른 향신료들은 또 얼마나 맛있어 보였는지, 설탕 옷을 입은 절임

과일은 녹은 설탕이 엉겨 얼룩얼룩한 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서, 아무리 차갑게 구경만 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현기증을 느끼고 속이 쓰릴 지경이었다. 무화과가
촉촉하고 과육이 풍부하다는 것도, 프랑스산 자두가
화려하게 꾸며진 상자 안에서 수줍은 새콤함으로 얼굴을
붉힌다는 것도, 모든 것이 먹음직스럽고 크리스마스 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손님들이
모두 하루의 희망찬 약속에 들떠 몹시 서두르고
열심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문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버들가지 바구니를 미친 듯이 부딪혀 대고, 산 물건을
계산대에 두고 갔다가 허겁지겁 되돌아와 챙겼다. 이런
실수를 수백 번씩 저지르면서도 최대한 좋은 기분으로
웃어넘겼다. 한편 식료품점 주인과 그의 직원들은 어찌나
솔직하고 생기가 넘쳤던지, 앞치마를 뒤로 여미는 반짝이는
하트 모양 고리가 실은 그들 자신의 심장이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겉에 걸치고 있다가 원한다면 크리스마스의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어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교회 종탑들이 선한 사람들을 모두 교회와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장 밝은 얼굴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몰려들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골목과 좁은 길, 이름 없는 모퉁이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들고 빵집을 향해 나왔다. 이

가난한 잔치 손님들의 모습은 유령의 흥미를 크게 끌었던 듯, 유령은 스크루지와 나란히 빵집 문간에 서서, 음식을 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덮개를 벗기고 횃불에서 향을 뿌렸다. 그런데 그 횃불은 아주 특별한 종류여서, 음식을 나르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쳐 언성을 높이며 다툰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령이 횃불에서 물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렸고, 그러면 그들의 좋은 기분은 곧바로 되살아났다. 크리스마스 날에 다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로 그러했다! 아무렴, 정말로 그러했다!

결국 종소리가 그치고 빵집들도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빵집 오븐 위마다 녹아 젖은 얼룩이 번져 있어서, 이 모든 저녁 식사와 그 요리가 익어 가는 과정이 은근히 비쳐 보였다. 그 자리의 포장도로에서는 돌까지 익기라도 하는 듯 김이 피어올랐다.

"횃불에서 뿌리는 것에 특별한 향이라도 있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있지. 나만의 향이야."

"이 날에는 어떤 저녁 식사에도 해당되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다정한 마음으로 차린 식사라면 어떤 것에든 해당되지. 가난한 집 식사에 가장 그렇고."

"왜 가난한 집 식사에 가장 그렇다는 겁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런 식사에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

"유령이여," 잠시 생각하고 나서 스크루지가 말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하필 당신이 이 사람들이 순진하게 즐길 기회를 옥죄고 싶어 한다니,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나?" 유령이 외쳤다.

"당신은 이레마다 돌아오는 그날, 이 사람들이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날이라고는 그날뿐인 경우가 많은데, 그날 식사할 방도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말이냐!" 유령이 외쳤다.

"이레째 되는 날에 이런 곳들을 닫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스크루지가 말했다. "결국 같은 얘기지요."

"내가 그러려 한다고!" 유령이 소리쳤다.

"잘못 짚었다면 용서하세요. 그건 당신의 이름으로, 적어도 당신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져 온 일이니까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의 어떤 자들은," 유령이 대답했다. "우리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이름을 걸고 격정과 교만, 악의와 증오, 시기와 편협, 이기심에서 나온 짓을 저지르지. 그런 자들은 우리와 우리 혈연들에게 마치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낯설지. 그걸 기억하고, 그 행위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돌려라."

스크루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채로 도시 변두리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스크루지가 빵집에서 이미 알아챘던 유령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다. 유령은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에든 쉽게 몸을 맞출 수 있었다. 낮은 지붕 아래에 서 있어도, 드높은 홀에 서 있을 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다웠다.

그 선량한 유령을 곧장 스크루지의 서기 집으로 이끈 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런 능력을 뽐내는 즐거움이었거나, 아니면 타고난 친절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천성과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공감이었을 것이다. 유령은 자기 옷자락을 붙든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문지방에 이르러

미소를 짓더니, 횃불에서 향을 흩뿌려 밥 크래칫의 집을 축복하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생각해 보라! 밥은 일주일에 겨우 십오 실링을 벌었다. 토요일마다 자기 세례명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동전을 겨우 열다섯 닢 챙길 뿐이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그의 방 네 칸짜리 집을 축복했다!

그러자 크래칫 부인, 밥 크래칫의 아내가 일어섰다. 그녀는 두 번이나 뒤집어 고쳐 지은 드레스를 입어 차림은 초라했지만, 값싸면서도 육 펜스만 주고 사도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리본으로 당당하게 꾸몄다. 그녀는 둘째 딸 벨린다 크래칫의 도움을 받아 식탁보를 폈고, 벨린다 역시 리본으로 꾸미고 있었다. 한편 피터 도련님은 감자가 든 냄비에 포크를 찔러 넣었다. 그러다 자기 목에 걸린 괴상하게 큰 셔츠 칼라의 끝자락을 입에 물었는데, 그 칼라는 원래 밥의 개인 소유물이었으나 오늘을 기려 장남이자 후계자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피터 도련님은 자신이 이토록 멋지게 차려입은 것을 알고 기뻐하며, 유행하는 공원에 나가 자기 셔츠를 뽐내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때 더 어린 크래칫 남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 들어왔다. 빵집 앞에서 거위 냄새를 맡았는데 그게 자기네 거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었다. 세이지와 양파를 넣은 요리를 떠올리며 황홀해진 아이들은 식탁 주위를 춤추듯 돌면서 피터

도련님을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 피터 도련님은 칼라에 목이 졸릴 지경이었는데도 우쭐대지 않고 불을 불었고, 마침내 느릿느릿 익은 감자가 보글보글 끓어올라 냄비 뚜껑을 쾅쾅 두드리며 어서 꺼내 껍질을 벗겨 달라고 졸랐다.

"그런데 너희 소중한 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너희 동생 꼬마 팀은 또 어떻고! 작년 크리스마스 날 마사는 이보다 반 시간은 일찍 오지 않았니?"

"엄마, 마사 왔어요!" 한 소녀가 말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마사 왔어요!" 크래칫네 어린 두 아이가 외쳤다.
"만세! 마사, 굉장한 거위가 있어!"

"아이고, 우리 귀여운 것, 세상에, 이렇게 늦었구나!" 크래칫 부인이 말하며 딸에게 열두 번이나 입을 맞추고, 마사의 숄과 보닛을 벗겨 주느라 열심히 부산을 떨었다.

"어젯밤에 끝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어요." 딸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치우느라 또 바빴고요, 엄마!"

"그래, 이렇게 왔으니 됐다. 아무래도 괜찮아."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얘야, 어서 불 앞에 앉아서 몸을 좀 녹여라.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오고 계셔!" 어디에나 동시에 있는 듯 날뛰던 어린 크래칫 두 명이 외쳤다. "숨어, 마사, 숨어!"

그리하여 마사는 몸을 숨겼고, 그때 몸집이 작은 아버지 밥이 들어왔다. 목도리는 술 장식을 빼고도 적어도 세 자는 되어 보였는데, 그것이 그의 앞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닳아 빠진 옷은 명절에 어울리도록 정성껏 꿰매고 솔질해 놓았고, 어깨 위에는 꼬마 팀이 앉아 있었다. 가엾게도 꼬마 팀은 작은 목발을 짚고 있었고, 다리는 쇠로 된 틀이 받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마사는 어디 있지?" 밥 크래칫이 둘러보며 외쳤다.

"오지 않는대요."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오지 않는다니!" 밥이 소리쳤다. 한껏 들떠 있던 기분이 갑자기 꺾였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내내 팀의 말 노릇을 하느라 그렇게 신이 났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에 오지 않겠다니요!"

마사는 그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다. 그것이 농담이었다 해도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벽장 문 뒤에서 예정보다 일찍 뛰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사이 크래칫네

어린 두 아이는 꼬마 팀을 잽싸게 들어 올려 세탁실로 데려갔다. 가마솥 안에서 푸딩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래 꼬마 팀은 어땠어요?" 크래칫 부인이 밥의 순진함을 놀려 준 뒤, 밥이 흡족할 때까지 딸을 가슴에 꼭 안아 주고 나서 물었다.

"더할 나위 없이 착했어요." 밥이 말했다. "아니, 그보다 더 착했어요.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생각이 깊어졌고,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말을 해요. 집에 오는 길에 나한테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봐 주면 좋겠다고요. 자기는 불구니까, 크리스마스 날 절뚝거리는 거지를 걷게 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한 분을 떠올리는 게 그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일일지 모른다고요."

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고, 꼬마 팀이 점점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떨림이 더 커졌다.

그러자 작고 활기찬 목발 소리가 마루에 울렸고, 다른 말이 오가기도 전에 꼬마 팀이 돌아왔다. 형과 누나가 그를 난로 앞 의자까지 데려다 앉혔다. 그 사이 밥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불쌍하게도, 소매가 더 낡아질 수 있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진과 레몬을 넣고 주전자에 뜨거운 음료를 만들어 휘휘 저은

다음, 난로 턱에 올려 천천히 끓였다. 그동안 피터 도련님과 어디에나 있는 두 어린 크래칫이 거위를 가지러 갔고, 곧 거위를 떠받치고 의기양양하게 행렬을 지어 돌아왔다.

그러자 온 집 안이 한바탕 법석을 떨어, 거위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새이기라도 한 듯 보였다. 깃털 달린 기적이라고나 할까, 그 옆에서는 검은 백조도 흔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집에서 거위는 그런 존재나 다름없었다. 크래칫 부인은 미리 작은 냄비에 준비해 둔 육즙을 지글지글 뜨겁게 데웠다. 피터 도련님은 믿기 어려울 만큼 힘차게 감자를 으깼다. 벨린다 아가씨는 사과 소스에 설탕을 넉넉히 넣었다. 마사는 뜨거운 접시들을 닦았다. 밥은 꼬마 팀을 식탁 한쪽 구석 자기 옆에 앉혔다. 두 어린 크래칫은 모두의 의자를 놓으면서 자기 자리도 잊지 않았고, 제자리를 지키며 차례가 오기 전에 거위를 달라고 소리치지 않도록 숟가락을 입에 쑤셔 넣었다. 마침내 접시들이 차려졌고 식사 기도가 올려졌다. 그 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크래칫 부인이 고기 써는 칼을 천천히 훑어보고는 가슴살에 칼을 대려 했다. 그런데 칼이 들어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속 재료가 쏟아져 나오자, 식탁 둘레에서 기쁨의 탄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두 어린 크래칫 때문에 신이 난 꼬마 팀조차 칼자루로 식탁을 두드리며 힘없이 만세를 외쳤다.

거위는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었다. 밥은 세상에 이런 거위가 요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부드러움과 풍미, 크기와 저렴함 모두가 온 식구의 감탄을 자아냈다.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로 양을 늘리니 온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저녁이 되었다. 실제로 크래칫 부인이 접시 위에 남은 뼈 조각 하나를 바라보며 무척 기뻐하며 말하기를, 결국 다 먹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특히 막내 크래칫들은 세이지와 양파에 눈썹까지 푹 절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벨린다 아가씨가 접시를 갈았고, 크래칫 부인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누가 지켜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푸딩을 꺼내 오려고 혼자 방을 나갔다.

만약 푸딩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면! 만약 뒤집어 꺼내다가 부서졌다면! 만약 뒤뜰 담장을 누군가 넘어와서, 식구들이 거위에 취해 즐거워하는 사이에 푸딩을 훔쳐 갔다면! 이런 상상에 두 어린 크래칫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온갖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이쿠! 김이 엄청나게 피어올랐다! 푸딩이 솥에서 나왔다. 빨래하는 날 같은 냄새! 그건 천 냄새였다. 식당과 제과점이 나란히 붙어 있고, 그 옆에 세탁소까지 붙어 있는 데서 나는 것 같은 냄새! 그게 바로 푸딩이었다! 삼십 초도 지나지 않아 크래칫 부인이 들어왔다. 얼굴은 상기되었지만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든 푸딩은 얼룩덜룩한 포탄처럼 단단하고 야무져 보였고, 반 잔의 반쯤 되는 브랜디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꼭대기에는 크리스마스 호랑가시나무 잎이 꽂혀 장식되어 있었다.

오, 정말 훌륭한 푸딩이었다! 밥 크래칫은 그것도 차분하게, 이 푸딩이야말로 결혼한 뒤 크래칫 부인이 이룬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했다. 크래칫 부인은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니 솔직히 털어놓겠다면서, 밀가루 양이 과연 충분할지 내심 의심했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한마디씩 했지만, 대식구가 먹기에 이 푸딩이 조금이라도 작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었을 것이다. 크래칫 식구라면 누구라도 그런 말을 암시하기만 해도 얼굴을 붉혔을 것이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났다. 식탁보를 치우고, 벽난로를 쓸고, 불을 다시 지폈다. 주전자 안의 음료를 맛보고 완벽하다고 판단하자, 식탁 위에 사과와 오렌지를 올렸고, 난로 위에는 밤을 한 삽 가득 얹었다. 그러고 나서 크래칫 가족 모두가 벽난로 주위에 둘러앉았다. 밥 크래칫이 '원'이라고 부른 모양이었는데, 사실은 반쪽짜리 원이었다. 밥 크래칫의 팔꿈치 옆에는 집안의 유리그릇 진열품이 놓여 있었다. 잔 두 개와, 손잡이가 없는 커스터드 컵 하나였다.

그래도 이 잔들은 황금 술잔 못지않게 주전자의 뜨거운 음료를 잘 담아냈다. 밥은 환하게 웃으며 음료를 나눠 주었고, 난로 위의 밤은 시끄럽게 탁탁 튀며 갈라졌다. 그러고 나서 밥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 얘들아.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온 가족이 그 말을 되받아 외쳤다.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꼬마 팀이 외쳤다.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밥은 아이의 시든 작은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마치 아이를 사랑하고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데, 그 아이를 자기에게서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지금껏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관심을 담아 말했다. "꼬마 팀이 살아남을지 말해 주십시오."

"초라한 난롯가 구석에 빈 자리가 보이는구나," 유령이 대답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목발 하나가 정성껏 간수되어 있구나. 미래가 이 그림자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오, 안 됩니다, 자비로운 유령이여! 그 아이는 살아남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미래가 이 그림자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족속 가운데 누구도 여기서 그를 찾지 못할 것이다," 유령이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가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죽어서 잉여 인구를 줄이는 편이 낫겠지."

스크루지는 유령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뉘우침과 슬픔이 그를 덮쳤다.

"인간이여," 유령이 말했다. "그대가 마음만은 강철이 아닌 인간이라면, 잔인한 그 말을 삼가라. 그 잉여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할지 결정하겠는가? 하늘이 보기에는, 그대야말로 이 가난한 사람의 아이 같은 수백만 명보다 더 쓸모없고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아, 하느님! 나뭇잎 위의 벌레가 먼지 속에서 굶주리는 제 형제들에게 생명이 너무 많다고 판결하는 소리를 듣다니!"

스크루지는 유령의 질책 앞에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눈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불리자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스크루지 사장님!" 밥이 말했다. "그럼 제가 이 잔치를 연 분, 스크루지 사장님을 위해 건배하겠습니다!"

"잔치를 연 분이라고요?" 크래칫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기만 한다면 내 속에 쌓인 말을 한 보따리 풀어 줄 텐데요. 그걸 실컷 뜯어 먹게 해 주고 싶어요. 부디 입맛 좋게 먹어 줬으면 좋겠네요."

"여보," 밥이 말했다. "아이들을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이니 그렇겠지요, 정말이지." 아내가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서야 누가 스크루지 씨처럼 밉살맞고, 인색하고, 모질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의 건강을 빌며 축배를 들겠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로버트!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가엾은 사람 같으니!"

"여보," 밥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당신과 크리스마스 날을 봐서 그 사람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 장수를 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지요! 그 사람도 틀림없이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축배를 들었다. 그들이 그날 치른 행사 가운데 이처럼 흥이 나지 않은 순간은 처음이었다. 꼬마 팀은 맨 마지막에 잔을 들었지만, 그 축배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이 집안의 도깨비였다. 그의 이름이 나오자 잔치판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꼬박 오 분이 지나서야 걷혔다.

그 그림자가 걷히자, 그들은 그 전보다 열 배는 더 즐거워졌다. 그저 흉악한 스크루지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밥 크래칫은 피터 도련님에게 맞는 일자리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주급으로 꼬박 오 실링 육 펜스를 벌 수 있다고 했다. 두 어린 크래칫들은 피터가 사업가가 된다는 생각에 배를 잡고 웃었다. 정작 피터는 깃 사이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떨떨할 만큼 큰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투자에 손을 댈지 고심하는 듯했다. 그다음에는 모자 가게의 견습생으로 일하는 가련한 마사가 자신이 하는 일과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내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며 푹 쉬겠다고도 했다. 내일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며칠 전에는 백작 부인과 어느 귀족을 보았는데, 그 귀족은 “키가 피터와 거의 비슷하더라”고 했다. 그 말에 피터는 깃을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머리가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동안 밤과 주전자는 식탁을 돌고 또 돌았다. 마침내 꼬마 팀이 애처롭고 작은 목소리로, 눈 속을 헤매는 길 잃은 아이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그 자리에 특별히 훌륭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잘생긴 가족이 아니었고, 옷차림도 변변치 않았다. 신발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옷가지도 얼마 없었다. 피터는 전당포 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실제로 가 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고,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를 기뻐했으며, 그 시간에 만족했다. 유령이 떠나며 횃불로 밝은 불꽃을 흩뿌리자 그들은 한층 더 행복해 보였고, 그 빛 속에서 그들은 점점 흐릿해졌다. 스크루지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특히 꼬마 팀을 마지막까지 눈에서 떼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날이 어둑해지고 눈이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부엌과 응접실, 그리고 온갖 방에서 활활 타오르는 난롯불의 밝은 빛이 참으로 놀라웠다. 이곳에서는 타오르는 불꽃이 아늑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난로 앞에서는 뜨거운 접시들이 속속들이 데워지고 있었고, 추위와 어둠을 막아 줄 짙붉은 커튼이 금방이라도 쳐질 듯 준비되어 있었다.

저쪽에서는 집안의 아이들이 모두 눈밭으로 뛰쳐나가, 결혼해서 떠나 있던 누이와 형제, 사촌, 삼촌, 고모와 이모를 마중하며 누구보다 먼저 인사하려 하고 있었다. 또 이쪽 창문의 블라인드에는 손님들이 모여드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한 무리의 예쁜 아가씨들이 모두 두건을 쓰고 털 장화를 신은 채 한꺼번에 재잘거리며 가까운 이웃집으로 가볍게 달려갔다. 그 집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된 독신 남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영리한 마녀들은 제 모습이 얼마나 눈부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겨운 모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만 보았다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아 줄 사람이 아무도 집에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집이 손님을 기다리며 굴뚝 절반 높이까지 장작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 축복 있으라! 유령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가슴을 활짝 드러내고 넓은 손바닥을 펼친 채 둥둥 떠다니며, 손 닿는 곳마다 밝고 해롭지 않은 즐거움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앞서 달리며 어둑한 거리에 빛의 점들을 찍던 가로등 점화원조차도, 저녁을 어딘가에서 보내려고 차려입고 있었는데, 유령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그 가로등 점화원은 크리스마스 말고는 자기에게 동행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제 유령의 한마디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은 황량하고 쓸쓸한 황야에 서 있었다. 거인들의 무덤이라도 되는 듯 다듬지 않은 거칠고 거대한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다. 물은 제멋대로 아무 데나 퍼져 있었다. 아니, 서리가 물을 꽁꽁 가두어 두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이끼와 가시금작화, 거칠게 자란 풀 말고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서쪽 아래편에서는 저무는 해가 불타는 듯한 붉은 줄무늬를 남겨 놓았고, 그것은 잠깐 동안 이 황량함을 노려보았다. 마치 뚱하게 찌푸린 눈처럼. 그러다 점점, 점점 더 낮게 가라앉더니, 가장 어두운 밤의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사는 곳이다." 유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지. 보아라!"

빛이 오두막 창문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으로 다가갔다. 진흙과 돌로 쌓은 벽을 지나자, 이글거리는 난로 둘레에 유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아주 늙은 노인과 노파, 그들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그 아래 세대까지, 모두 명절 옷으로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노인은 황량한 벌판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좀처럼 넘지 못하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 주고 있었다. 노인이 소년이었을 때에도 이미 아주 오래된 노래였고, 그들은 때때로 후렴을 함께 따라 불렀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노인도 어김없이 더 쾌활해지고 목청도 커졌으며, 그들이 노래를 멈추면 노인의 기운도 어김없이 다시 가라앉았다.

유령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스크루지에게 자기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하더니 황야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어디로 간 것일까? 바다로? 그렇다, 바다로. 스크루지가 뒤를 돌아보니 기겁할 일이었다. 그들 뒤로 육지의 마지막 자락, 끔찍하게 늘어선 바위 무더기가 멀어지고 있었다. 물이 굽이치며 으르렁거리고 날뛰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다. 물은 제 손으로 파낸 무시무시한 동굴 사이에서 격렬하게 부딪치며 땅의 뿌리까지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듯했다.

해안에서 한 리그쯤 떨어진, 물에 잠긴 음울한 암초 위에 외딴 등대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암초에는 일 년 내내 파도가 부딪히며 찰싹이고 부서졌다. 등대 밑동에는 커다란 해초 더미가 달라붙어 있었고, 폭풍새들이 그 주위로 오르내렸다. 물에서 해초가 생겨나듯 바람에서 태어난 새라고 여길 만한 새들이었고, 그 새들은 자신들이 스치듯 날아다니는 파도처럼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등대를 지키는 두 사내가 불을 피워 놓고 있었다. 그 불은 두꺼운 돌벽의 총안(銃眼) 틈으로 무시무시한 바다 위에 한 줄기 빛을 던지고 있었다. 두 사내는 자기들이 앉은 거친 탁자 너머로 굳은살 박인 손을 맞잡고, 럼주가 든 잔을 들어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빌었다. 그중 나이 든 사내는 얼굴이 험한 날씨에 굵히고 할퀴어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낡은 배의 선수상(船首像)처럼 보였다. 그 사내가 힘찬 노래를 뽑기 시작했는데, 노래 그 자체가 한 줄기 폭풍 같았다.

다시 유령은 검고 출렁이는 바다 위를 날아갔다. 스크루지에게 말한 대로 어느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그들은 한 배 위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키를 잡은 조타수 곁에 섰고 이물에서 망을 보는 선원과 당직을 서는 사관들 곁에도 섰다. 저마다 자리를 지키는 어둡고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 크리스마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리스마스에 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또 누군가는 지나간 어느 크리스마스 날을 두고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그날과 함께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바람을 나누었다. 배 위의 모든 사람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착하든 나쁘든, 그날만큼은 한 해 어느 날보다 다른 이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 축제 기분을 어느 정도 함께

나누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 사람들도 자신을 떠올리며 기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심연 위를 외로운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심연의 깊이는 죽음만큼이나 깊은 비밀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크루지는 크게 터지는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자기 조카의 것임을 알아차렸을 때는 더 놀라웠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자신이 밝고 물기 하나 없는, 반짝이는 방 안에 있으며, 유령이 곁에 서서 미소 지으며 그 조카를 흐뭇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하!" 스크루지의 조카가 웃었다. "하하하!"

혹시라도 우연히, 웃음소리 하나로 스크루지의 조카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나로서는 그 사람도 꼭 알고 싶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 사람을 내게 소개해 주기만 하면, 그와 친분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질병과 슬픔도 옮기는 하지만, 웃음과 쾌활함만큼 저항할 수 없이 전염되는 것도 세상에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평하고 치우침 없는, 고귀한 세상의 이치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이렇게 웃을 때, 그러니까 옆구리를 움켜잡고 고개를 흔들며 얼굴을 가장 우스꽝스럽게 일그러뜨리며 웃을 때,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도 그만큼 신나게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우렁차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세상에,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허튼소리래!" 스크루지의 조카가 외쳤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믿기까지 했다니까!"

"그 사람은 더 부끄러워해야 해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가 분개해서 말했다. 참 기특한 여자들이다. 그들은 무엇이든 반쯤만 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진심이다.

그녀는 아주 예뻤다. 정말 몹시 예뻤다. 보조개가 파이고, 놀란 듯하면서도 기품 있는 얼굴이었다. 익은 앵두처럼 작은 입술은 입 맞추라고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턱에는 귀여운 점들이 여럿 있었고, 그녀가 웃으면 그 점들이 서로 녹아들듯 어우러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아가씨에게서도 본 적 없을 만큼 햇살처럼 환한 두 눈을 지니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애를 태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흡족한 사람이기도 했다. 아, 완벽하게 흡족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우스꽝스러운 노인이야."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좀 더 유쾌하게 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은 그 자체로 벌이 되니, 난 그 사람을 나무랄 생각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 분명 큰 부자일 거예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가 넌지시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보!"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 사람한테는 재산이 아무 쓸모도 없어. 그걸로 좋은 일을 하지도 않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도 않아. 그가 언젠가 그 돈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만족감조차 없지—하하하!"

"난 그 사람 정말 못 참겠어요."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가 말했다. 스크루지 조카며느리의 자매들과 다른 모든 여자들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아, 난 참을 수 있어!"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난 그 사람이 안됐어. 화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더라고. 그 사람의 못된 변덕 때문에 누가 고생하지? 언제나 자기 자신이야. 이번만 해도 그래. 우리가 싫다고 작정하고는 같이 저녁을 먹으러 오지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지? 뭐, 대단한 저녁을 놓친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저녁을 놓치는 거예요."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가 끼어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들의 판단은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방금 저녁을 먹었고, 식탁 위에는 후식이 놓여 있었으며, 그들은 램프 불빛 아래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이 젊은 살림꾼들을 그다지 믿지 않거든. 토퍼, 자네 생각은 어때?"

토퍼는 분명 스크루지 조카며느리의 자매 중 한 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듯, 독신남은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가련한 버림받은 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크루지 조카며느리의 자매 — 레이스 목깃을 두른 통통한 쪽이지, 장미 장식을 단 쪽이 아니다 — 가 얼굴을 붉혔다.

"계속해 봐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이는 말을 꺼내 놓고 끝을 맺는 법이 없다니까요! 정말 우스운 사람이라니까요!"

스크루지의 조카는 또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전염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통통한 여동생이 향기 나는 식초를 코에 대며 애써 막아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모두가 그의 본을 받아 한목소리로 따라 웃었다.

"내가 말하려던 건 말이지,"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삼촌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려는 결과는, 내 생각엔, 삼촌이 즐거운 순간들을 잃는다는 거야. 그건 삼촌에게 아무런 해도 되지 않을 순간들이지. 곰팡내 나는 낡은 사무실이나 먼지투성이 방에서 혼자 곱씹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동무들을 잃고 있는 거라고 나는 확신해. 나는 삼촌이 좋든 싫든 매년 같은 기회를 주려고 해. 삼촌이 가엾거든. 삼촌은 죽을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욕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해마다 기분 좋게 찾아가서 '스크루지 삼촌,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하는 걸 보면, 삼촌도 크리스마스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삼촌이 그럴 거라고 장담해. 삼촌이 그저 불쌍한

서기에게 오십 파운드를 남겨 줄 기분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어제 내가 삼촌을 조금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이제 그가 스크루지를 흔들어 놓았다는 생각에 웃을
차례였다. 그러나 그는 워낙 마음이 너그러웠고 어쨌든
웃기만 한다면 무엇을 두고 웃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들의 흥겨움을 북돋우며 술병을 즐겁게 돌렸다.

차를 마신 뒤에는 음악을 들었다. 그들은 음악을 아는
집안이었으니, 글리나 캐치를 부를 때면 제대로 부른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다. 특히 토퍼가 그랬다. 그는 진짜
명인처럼 저음으로 웅얼거릴 줄 알았고, 그러면서도 이마의
굵은 핏줄을 부풀리거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법이
없었다.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는 하프를 잘 탔고, 여러 곡
가운데 단순하고 자그마한 노래 한 곡을 연주했다. 정말이지
별것 아닌 곡이라 이 분이면 휘파람으로 따라 불 수 있을 만큼
쉬웠다. 하지만 그 곡은 기숙학교에서 스크루지를 데리러 온
그 어린 여자아이,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그에게 일깨워
준 바로 그 아이에게 익숙한 노래였다. 이 가락이 울려 퍼지자
그 유령이 보여 준 모든 장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누그러졌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오래전에

이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제이컵 말리를 묻은 교회지기의 삽에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두 손으로 삶의 다정함을 가꾸어 자기 행복을 일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그들이 저녁 내내 음악만 들은 것은 아니었다. 얼마 뒤에는 벌칙 놀이를 했다. 때로는 아이가 되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위대한 창시자가 몸소 아이였던 크리스마스에는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다. 잠깐, 먼저 눈가리개 술래잡기가 있었다. 당연히 있었다. 나는 토퍼가 정말로 눈이 안 보인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의 장화 속에 눈이 달려 있다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생각에는 그와 스크루지의 조카가 미리 짜 놓은 일이었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레이스 목장식을 단 통통한 여동생을 쫓아다니는 그의 수작은 인간의 순진함을 우롱하는 짓이었다. 부지깽이를 쓰러뜨리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피아노에 부딪치고, 커튼 속에 파묻히면서도, 그 여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는 따라갔다. 그는 언제나 통통한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다른 사람은 절대 잡지 않았다. 여러분이 일부러 그에게 부딪치기라도 하면(실제로 몇몇은 그랬다), 그는 여러분을 붙잡으려는 시늉만 해서 여러분의 지성을 모욕한 다음, 곧장 통통한 여동생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갔다. 그 여자는 자주 불공평하다고 외쳤다. 그리고 정말 불공평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가 비단 옷자락을 사각거리며 그의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도 그가 결국 그녀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구석으로 몰았을 때, 그의 행동은 가장 혐오스러웠다. 그녀를 모른 척하고, 머리장식을 만져 봐야 하고,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누르고 목걸이를 확인해야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듯 시치미를 떼는 짓은 비열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분명 다른 사람이 술래가 되어 두 사람이 커튼 뒤에서 그토록 은밀하게 얘기를 나눌 때, 그녀는 그에게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스크루지의 조카며느리는 눈가리개 술래잡기 무리에 끼지 않았다. 그녀를 위해서는 아늑한 구석 자리에 커다란 의자와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고, 유령과 스크루지가 바로 그녀 뒤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벌칙 놀이에는 함께했고, 알파벳의 모든 글자를 써서 자기 연인을 사랑스럽게 불러 감탄을 자아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놀이에서도 그녀는 아주 뛰어났다. 스크루지의 조카는 속으로 기뻐하며 그녀가 자매들을 완전히 이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매들도 영리한 아가씨들이었는데 말이다. 그 점은 토퍼가 증언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는 젊은이와 노인을 합쳐 스무 명쯤 있었을 테고, 모두가 놀이를 했으며 스크루지도 그랬다. 그는 벌어지는 일에 푹 빠진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가끔 큰 소리로

답을 외쳤다. 그리고 꽤 자주 정답을 맞히기도 했다. 바늘귀에 실이 끊기지 않는다고 보증된 최고급 화이트채플 바늘도 스크루지보다 날카롭지는 않았다. 스크루지가 평소에 아무리 무디게 굴기로 작정했다 해도 말이다.

유령은 그가 이런 기분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흐뭇해하며 그를 무척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머물게 해 달라고 소년처럼 졸랐다. 그러나 유령은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 놀이가 시작되는군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반 시간만요, 유령이여, 딱 반 시간만!"

그것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놀이였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혀야 했고, 그는 질문마다 경우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했다.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동물을, 살아 있는 동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것도 꽤 불쾌한 동물, 사나운 동물, 때로는 으르렁거리고 꿀꿀거리고 때로는 말도 하며, 런던에 살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구경거리로 전시되지도 않고 누가 끌고 다니지도 않으며, 동물원에 살지도 않고 시장에서 잡히지도 않는 동물이라고 했다. 말도, 당나귀도, 소도, 황소도,

호랑이도, 개도, 돼지도, 고양이도, 곰도 아니라고 했다. 새로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 조카는 새로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너무나 우스워 견딜 수 없어서 소파에서 일어나 발을 구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통통한 여동생도 같은 상태에 빠져들어 외쳤다.

"알았어! 뭔지 알겠어, 프레드! 뭔지 알겠다고!"

"뭔데?" 프레드가 외쳤다.

"네 삼촌 스크루-우-우-우-우지야!"

과연 정답이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감탄했다. 다만 "그게 곰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였어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설령 누가 스크루지 씨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해도, 아니라는 대답만으로 생각이 그에게서 멀어지기에 충분했을 테니 말이다.

"삼촌 덕분에 우리가 실컷 즐거웠던 건 분명해." 프레드가 말했다. "그러니 삼촌의 건강을 빌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짓이야. 마침 여기 따뜻한 포도주가 손 닿는 곳에 있어. 그럼 건배하지. '스크루지 삼촌을 위하여!'"

"스크루지 삼촌을 위하여!" 그들이 외쳤다.

“노인장께도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분은 나한테서 받으려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받으시라지. 스크루지 삼촌!”

스크루지 삼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마음이 들떠 가볍고 즐거워져서, 유령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었더라면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례로 건배하고 들리지도 않을 연설로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장면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그와 유령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멀리까지 갔으며 수많은 집을 찾아갔지만,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유령이 병상 곁에 서면 환자들은 명랑했고, 유령이 타향에 닿으면 사람들은 고향이 가까이 있는 듯 느꼈다.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 곁에 서면 그들은 더 큰 희망을 품고 참았고, 가난 곁에서는 가난이 오히려 풍요로웠다. 구빈원과 병원과 감옥, 비참함이 머무는 온갖 피난처에서도, 하찮은 짧은 권세를 쥔 허영 많은 인간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 유령을 내쫓지 않은 곳이라면, 유령은 어디서나 축복을 남기고 스크루지에게 가르침을 일러 주었다.

그것이 하룻밤이었다면 긴 밤이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그 점을 의심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 둘이 함께 보낸 시간 속에 응축되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스크루지의 겉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유령은 나이를 먹고 있었다. 분명히 늙어 가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이 변화를 알아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들의 주현절 파티를 떠나 탁 트인 곳에 함께 섰을 때, 그는 유령을 바라보다가 그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유령의 삶은 그렇게 짧습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이 땅에서 내 삶은 아주 짧아." 유령이 대답했다. "오늘 밤에 끝나지."

"오늘 밤이라고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오늘 밤 자정에. 들어 봐! 시각이 다가오고 있어."

그 순간 종소리가 열한 시 사십오 분을 알리고 있었다.

"제가 여쭙는 것이 실례라면 용서하십시오." 스크루지가 유령의 옷자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옷자락 밑으로 뭔가 이상한 것이 삐져나와 있군요. 유령께 속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발입니까, 발톱입니까?"

"붙은 살이 그 정도뿐이니 발톱이라 해도 되겠지," 유령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걸 봐라."

유령이 옷자락 사이에서 아이 둘을 꺼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섭고, 흉측하고, 불쌍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유령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옷자락 바깥쪽에 매달렸다.

"오, 인간이여! 여기를 봐라. 보라니까, 여기 아래를 봐라!" 유령이 외쳤다.

그것은 한 소년과 한 소녀였다. 누렇고, 비쩍 마르고, 누더기를 걸쳤고, 찌푸린 얼굴에 이리처럼 사나웠지만, 한편으로는 비천한 처지에 짓눌린 듯 납작 엎드려 있었다. 우아한 젊음이 그들의 얼굴을 채우고 가장 싱그러운 빛깔로 어루만졌어야 할 자리에는, 늙은이의 손처럼 말라비틀어지고 시든 손이 그들을 꼬집고 비틀어 갈가리 찢어 놓았다. 천사가 옥좌에 앉아 있었어야 할 자리에는 악마가 숨어서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기이한 창조의 온갖 신비를 통틀어, 어떤 등급의 인간성에서든, 이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들을 만들어 낼 만한 변화나 타락, 왜곡은 없다.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아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자, 그는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런 엄청난 거짓말에 동조하느니 차라리 말이 목에서 막혀 버렸다.

"유령이여! 이 아이들은 유령의 자식입니까?" 스크루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아이들이다." 유령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비들에게서 벗어나 나에게 매달리며 호소하고 있다. 이 사내아이는 무지이고, 이 계집아이는 궁핍이다. 둘 다 조심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도 모두 조심하라. 특히 이 사내아이를 조심하라. 그의 이마에서 나는 파멸이라고 쓰인 글을 본다. 그 글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부정하라!" 유령은 도시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다.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비방하라! 너희의 당파적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고 더 악화시켜라. 그리고 끝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들에게는 피난처도 의지할 곳도 없단 말입니까?" 스크루지가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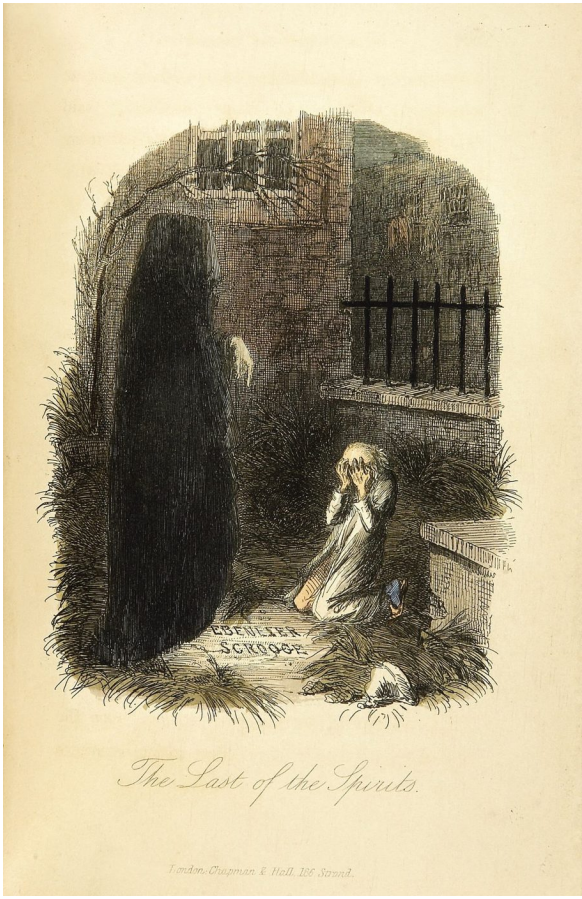
“감옥은 없단 말인가?” 유령이 스크루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며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구빈원은 없단 말인가?”

종이 열두 번 울렸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종소리의 떨림이 가라앉자, 그는 제이컵 말리 영감이 했던 예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망토를 두르고 두건을 깊이 눌러쓴 엄숙한 유령 하나가 땅을 기는 안개처럼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제4장

마지막 유령



존 리치, 「마지막 유령」(1843년 초판 삽화)

유령은 천천히, 엄숙하게, 말없이 다가왔다. 유령이 가까이 오자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이 유령은 지나가는 허공에마저 어둠과 신비를 흩뿌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까만 옷에 싸여 있어서, 머리도 얼굴도 몸도 가려졌고, 뻗어 나온 한 손을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손이 없었다면 그 형체를 밤에서 떼어 내고, 그것을 둘러싼 어둠에서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령이 곁으로 다가오자 그는 그것이 키가 크고 위엄이 있다고 느꼈으며, 그 신비로운 존재가 그를 엄숙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유령은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앞쪽을 가리킬 뿐이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를 제게 보여 주시려는 거지요," 스크루지가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까, 유령이여?"

옷의 윗부분이 잠시 주름을 지으며 오므라들었다. 마치 유령이 고개를 숙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대답이었다.

유령들과 함께 지내는 데 이제는 꽤 익숙해졌지만, 스크루지는 그 말없는 형체가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따라가려고 일어서 보니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유령은 그의 상태를 살피듯 잠시 멈춰 서서, 그가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이 일로 스크루지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어둠침침한 수의 뒤에 유령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공포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는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떠 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유령의 손 하나와 검은 덩어리 하나뿐이었다.

"미래의 유령이여!" 그가 외쳤다. "당신은 제가 본 어떤 유령보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이 저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제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기에,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은 그들 바로 앞을 가리키고 있었다.

"앞장서 주십시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앞장서 주십시오! 밤이 빨리 기울고 있고,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유령이여!"

유령은 처음 다가왔던 것처럼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스크루지는 그 옷자락의 그림자를 따라갔는데, 그 옷자락이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듯, 그리고 자신을 앞으로 실어 가는 듯 느껴졌다.

그들은 도시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었다. 도시가 오히려 그들 주위로 솟아오르며, 제 스스로 그들을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다. 증권 거래소였다. 상인들이 이리저리 바삐 오가며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거렸고,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커다란 금 인장을 골똘히 만지작거렸다. 스크루지는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유령은 한 무리의 사업가들 곁에 멈춰 섰다. 손이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스크루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 턱이 괴상하게 큰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나야 어느 쪽이든 잘은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그가 죽었다는 것뿐이야.”

“그 사람 언제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어젯밤인 것 같아.”

“아니, 그 사람 왜 죽었대?” 세 번째 사람이 아주 큰 코담배갑에서 엄청난 양의 코담배를 집으며 물었다. “난 그 사람이 영영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글쎄, 누가 알겠나.” 첫 번째 사람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사람, 돈은 어떻게 했대?” 코끝에 늘어진 혹 같은 살덩이가 달려 있어 수칠면조의 턱 살처럼 흔들리는, 얼굴이 불그레한 신사가 물었다.

“난 못 들었어.” 턱이 큰 남자가 또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마 자기 회사에 남겼겠지. 나한테는 안 남겼어. 내가 아는 건 그뿐이야.”

이 농담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장례식은 아마 아주 싸게 치르게 되겠군,” 같은 사람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참석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끼리 일행을 꾸려서 자원해 가 보는 게 어때?”

“점심이 나온다면 가는 건 상관없지,” 코에 혹이 난 신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도 끼는 거라면 밥은 먹여 줘야지.”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글쎄, 어쨌든 자네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사심이 없는 사람일 거야.”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난 검은 장갑을 끼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른 누가 가겠다고 하면 나도 가겠어.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지도 모르겠군. 마주치면 늘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니까. 그럼 잘들 있어!”

말하던 사람들도 듣던 사람들도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 섞였다. 스크루지는 그 남자들을 알아보고, 설명을 듣고자 유령을 바라보았다.

유령은 미끄러지듯 거리로 나아갔다. 그 손가락이 마주친 두 사람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설명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두 사람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둘 다 사업가였는데, 아주 부유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그는 늘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써 왔다. 사업상으로 말이다. 엄밀히 말해 사업상의 관점에서 그랬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 사람이 말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른 사람이 되받았다.

"그나저나!"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악마가 드디어 제 것을 챙겨 갔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다. "춥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철에 어울리는 날씨군요. 설마 스케이트를 타는 분은 아니겠죠?"

"아뇨, 아뇨. 달리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더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만남이었고, 그들의 대화였고, 그들의 작별이었다.

스크루지는 처음에 유령이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좀 의아했다. 그러나 그 대화에는 분명 어떤 숨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 말들이 옛 동업자 제이컵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제이컵의 죽음은 과거의 일이었고, 이 유령의 영역은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 가운데 그 말들을 적용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누구에게 적용되든 간에 자신을 고치는 데 쓸 만한 교훈이 숨어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들은 말과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림자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이 보기로 했다. 미래의 자기 행동이 그가 놓친 실마리를 쥐여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수수께끼들을 푸는 일이 쉬워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평소 늘 서 있던 구석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시계가 그가 거기 서 있곤 하던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거래소 현관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모습과 닮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는 그동안 삶을 바꾸는 일을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었고, 새로 품은 결심이 이 일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는 손을 뻗은 유령이 말없이 어둡게 서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자기 모습을 찾던 그는 정신을 차리고, 손이 기울어진 모양과 그 손이 자기를 향한 위치를 보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자기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 생각에 그는 몸을 떨었고, 온몸이 아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북적이는 거리를 떠나 스크루지가 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도시의 으슥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 평판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길은 더럽고 좁았으며, 가게와 집들은 초라했다. 사람들은 반쯤 벌거벗었거나, 술에 취했거나, 신발을 끌고 다녔고, 하나같이 험상궂었다. 골목과 아치형 통로는 마치 오물 구덩이처럼 악취와 더러움과 삶의 찌꺼기를 흐트러진 거리 위로 토해 내고 있었다. 이 동네 전체가 범죄와 오물과 비참함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이 악명 높은 소굴의 한구석, 처마처럼 튀어나온 지붕 아래에 낮은 이맛돌의 우중충한 가게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쇠붙이, 낡은 누더기, 병, 뼈, 기름기 가득한 내장 찌꺼기를 사들였다. 가게 안 바닥에는 녹슨 열쇠, 못, 쇠사슬, 경첩, 줄칼, 저울, 추, 온갖 종류의 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누구도 굳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비밀들이 보기 흉한 누더기의 산, 썩어 가는 기름덩이의 무더기, 뼈로 된 무덤들 속에서 태어나 숨겨져 있었다. 그 물건들 한가운데, 낡은 벽돌로 만든 숯 화로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칠십 살 가까이 된 머리가 희끗한 악당이었다. 그는 밖에서 들이치는 찬 공기를 줄에 걸어 둔 온갖 헝겊 조각을 기운 지저분한 휘장으로 가려 놓고, 고요한 은거의 온갖 호사를 누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이 사내 앞에 들어섰을 때, 무거운 보따리를 든 여자 하나가 가게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서자마자, 똑같이 짐을 잔뜩 진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고, 그 뒤를 바랜 검은 옷차림의 사내가 바짝 따라 들어왔다. 사내는 두 여자를 보고, 두 여자가 서로를 알아보았을 때 못지않게 놀랐다. 담배를 피우던 노인까지 덩달아 어안이 벙벙해진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세 사람은 모두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청소부가 일등으로 올 줄 알았다니까!" 먼저 들어온 여자가 외쳤다. "빨래하는 여자가 두 번째고, 장의사 심부름꾼이 세 번째일 줄 알았지. 이봐요, 조 영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우리 셋이 일부러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다 만나다니!"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만날 수는 없었을 거요." 조 영감이 입에서 파이프를 떼며 말했다. "안쪽 방으로 들어오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드나들던 사이 아니오. 나머지 둘도 낯선 사이가 아니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오. 아! 문이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여기 있는 쇠붙이 중에 제 경첩만큼 녹슨 건 없을 거요. 그리고 여기 나만큼 낡은

뼈다귀도 없을 거고. 하하! 우리 모두 하는 일에 딱 맞는 사람들이오,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란 말이오. 안쪽 방으로 들어오시오. 안쪽 방으로 들어오시오."

안쪽 방은 누더기 칸막이 뒤의 공간이었다. 노인은 낡은 계단 봉으로 화롯불을 긁어모았다. 그러고는 (밤이었으므로) 파이프 대롱으로 그을음이 나는 등잔의 심지를 다듬은 다음, 파이프를 다시 입에 물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아까 먼저 말을 꺼냈던 여자가 자기 보따리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의자 하나에 뻔뻔스러운 태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걸쳐 놓고, 맞은편의 두 사람을 대담하게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딜버 부인?" 여자가 말했다. "누구든 제 앞가림은 제가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양반도 늘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세탁부가 말했다. "그 양반만큼 그런 사람도 없었죠."

"그렇다면, 겁먹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지 말아요, 아주머니.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설마 우리끼리 서로 흠을 들추자는 건 아니겠죠?"

“천만에요!” 딜버 부인과 사내가 동시에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좋아요, 그럼!” 여자가 소리쳤다. “그 정도면 됐어요. 이런 물건 몇 개 잃는다고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설마 죽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니고말고요.” 딜버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 영감이 죽은 뒤에도 그걸 간직하고 싶었다면, 그 고약하고 인색한 늙은이 말이에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살아 있을 때는 왜 사람답게 굴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죽음이 덮쳤을 때 누군가 곁에서 돌봐 줬을 텐데, 저렇게 혼자 누워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 가장 참된 말이에요,” 딜버 부인이 말했다. “그게 그 영감에 대한 벌이에요.”

“벌이 좀 더 무겁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자가 대답했다. “다른 걸 더 손에 넣을 수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조 영감, 그 보따리를 풀어서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말해 봐요.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두렵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모이기 전에도 각자 챙길 걸 챙기고 있었다는 건 다들 잘 알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보따리를 풀어요, 조.”

하지만 친구들의 기사도 정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빛바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챙긴 물건을 내놓았다. 많지는 않았다. 인장 한두 개, 연필 케이스, 소매 단추 한 쌍, 그리고 그다지 값나가지 않는 브로치 하나가 전부였다. 조 영감이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값을 매겼다. 그는 각 물건에 얼마를 쳐줄지 벽에 분필로 적었고,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그 금액들을 합쳐 총액을 냈다.

"이게 당신 계산이오," 조가 말했다. "이것보다 6펜스도 더 주지 않겠소. 안 해 준다고 나를 삶아 버린다 해도 말이오. 다음은 누구요?"

딜버 부인이 그다음이었다. 시트와 수건, 약간의 의복, 구식은 찻숟가락 두 개, 설탕 집게 하나, 그리고 부츠 몇 켤레였다. 그녀의 계산 내역도 똑같은 방식으로 벽에 적혀 있었다.

"나는 늘 부인네들한테 너무 후하게 쳐 준다오. 그게 내 약점이라, 그러다 내 살림을 말아먹는 거요," 조 영감이 말했다. "이게 당신 계산이오. 만약 당신이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후하게 굴었던 걸 후회하고 반 크라운을 깎아 버릴 거요."

"그럼 이제 내 보따리를 풀어 봐요, 조,"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조는 보따리를 더 쉽게 풀려고 무릎을 꿇었다. 매듭을 수없이 풀고 나서, 그는 어두운 빛깔의 커다랗고 무거운 천 뭉치를 끌어냈다.

"이게 뭐요?" 조가 말했다. "침대 커튼!"

"아!" 여자가 웃으며 팔짱을 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대답했다. "침대 커튼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누워 있는데 고리까지 전부 떼어 냈다는 말은 아니겠소?" 조가 말했다.

"그래요, 그랬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왜 안 되나요?"

"당신은 부자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소." 조가 말했다. "그러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요."

"손만 뻗으면 뭐라도 쥘 수 있는데, 그런 인간 사정 봐준다고 손을 거두진 않을 거예요, 조. 정말이에요."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 기름을 담요에 떨어뜨리지 말아요."

"그 사람 담요 말이오?" 조가 물었다.

"그 말고 누구 담요겠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담요가 없다고 이제 와서 감기 들 리도 없을 테고요."

"혹시 전염병으로 죽은 건 아니겠소? 응?" 조 영감이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여자가 대답했다. "정말 전염병으로 죽었다면, 이까짓 물건 때문에 그 곁을 어슬렁거릴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아, 그 셔츠를 눈이 아플 때까지 들여다보셔도 소용없어요. 구멍도, 해진 데도 없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셔츠였고, 그것도 아주 괜찮은 거였죠. 내가 아니었으면 다 낭비될 뻔했다니까요."

"낭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조 영감이 물었다.

"물론 그를 묻을 때 입히려고 하는 거지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입혀 놓았길래, 내가 도로 벗겨 냈지요. 그런 용도에 캘리코 천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몸에도 그만큼 어울리고요. 그가 그 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흉해 보일 수는 없지요."

스크루지는 이 대화를 공포에 질린 채 들었다. 그들이 노인의 등불이 내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약탈품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혐오와 역겨움이 떠올랐다. 그들이 시체 자체를 팔아넘기고 있는 추악한 악마들이었다 해도 그 감정이 더 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 하!" 조 영감이 돈이 든 플란넬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각자 몫을 세어 늘어놓자 아까 그 여자가 웃었다. "보세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살아서는 사람들을 죄다 겁줘 쫓아 버리더니, 죽어서 우리 좋은 일 시켜 주려고 그랬나 봐요! 하, 하, 하!"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불행한 사내의 처지가 어쩌면 제 처지일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제 삶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요. 자비로운 하늘이시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장면이 바뀌어 이제 그는 침대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커튼도 없는 맨 침대였다. 찢어진 홑이불 아래에 무언가가 덮여 있었는데, 말이 없는 그것이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었다.

방은 몹시 어두웠다. 어찌나 어두운지 무엇 하나 정확히 살펴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스크루지는 어떤 방인지 알고 싶은 은밀한 충동에 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깥 공기 속에서 떠오른 창백한 빛이 곧장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 위에는, 물건을 도둑맞고 버림받은 채, 지켜보는 이도 없고 울어 주는 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이, 이 사내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힐끗 바라보았다. 유령의 한 손이 머리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덮개는 어찌나 아무렇게나 덮여 있던지, 스크루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 들어 올려도 얼굴이 드러날 판이었다. 그는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울지 느꼈으며, 그러고 싶어 몸이 달았다. 그러나 곁에 선 유령을 물리칠 힘이 없듯, 그 베일을 걷어 올릴 힘도 없었다.

오, 차갑고, 차갑고, 뻣뻣하고, 끔찍한 죽음이여, 여기에 너의 제단을 세우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온갖 공포로 그것을 장식하라. 이곳이 바로 너의 지배 영역이니! 그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명예로웠던 그 머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너는 네 끔찍한 목적에 맞게 돌릴 수 없고, 그 얼굴 한 군데도 밉살스럽게 만들 수 없도다. 손이 무거워 놓으면 툭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 심장과 맥박이 멎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 손이 살아서는 활짝 열려 있었고, 너그럽고,

진실했기 때문이다. 그 심장이 용감하고, 따뜻하고, 다정했기 때문이며, 그 맥박이 참된 사람의 맥박이었기 때문이다. 내려쳐라, 그림자여, 내려쳐라! 그리하여 그의 선행이 상처에서 솟아나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뿌리는 것을 보라!

스크루지의 귀에는 그 어떤 목소리도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침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 사람을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의 맨 처음 생각은 무엇일까? 탐욕, 가혹한 거래, 움켜쥔 근심일까? 그것들이 그를 참으로 풍요로운 끝으로 데려왔구나!

그는 어둡고 텅 빈 집에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내게 친절했으니, 그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라도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 주겠다'고 말해 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하나 없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문을 긁고 있었고, 난로 돌 아래에서는 쥐들이 무언가를 갉아 대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의 방에서 그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토록 안절부절못하고 소란스러운지, 스크루지는 감히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

"유령이여!" 그가 말했다. "여기는 끔찍한 곳이군요.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곳의 교훈만은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어서 가시지요!"

여전히 유령은 움직임 없는 손가락으로 그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유령이여. 정말 힘이 없습니다."

다시 그 유령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도시에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스크루지가 몹시 괴로워하며 말했다. "그 사람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유령이여, 간청합니다!"

유령이 잠시 검은 옷자락을 날개처럼 그의 앞에 펼쳤다. 그러다 옷자락을 거두자, 낮의 빛이 드는 방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은 초조하고 간절했다. 방 안을 이리저리 걸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으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바느질로 마음을 붙들어 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조차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리던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문으로 가서 남편을 맞았다. 남편은 젊었지만 얼굴에 근심이 깊이 배어 있고 기가 죽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일종의 진지한 기쁨 같은 것이었는데, 그는 그 기쁨을 부끄러워하며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난롯가에 자신을 위해 아껴 둔 저녁 식사 앞에 앉았다. 그녀가 힘없이 무슨 소식이 있느냐고 묻자(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야 물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그녀가 그를 도우려고 물었다.

"나쁜 소식이오." 그가 대답했다.

"우리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니오. 그래도 희망은 있소, 캐럴라인."

"만약 그가 마음을 돌렸다면," 그녀는 놀라서 말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가망 없는 일이란 없어요."

"그는 이제 마음을 돌릴 수 없소,"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그는 죽었소."

그녀는 얼굴을 보면 온순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이 고마워했고, 두 손을 맞잡은 채 그렇게 말했다. 바로 다음 순간 용서를 빌며 미안해했다.
그래도 맨 처음 솟은 감정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어젯밤에 당신에게 말한 그 반쯤 취한 여자 말이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일주일 말미를 얻으려 했을 때 그 여자가 한 말을, 나는 나를 피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여겼소. 그런데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소. 그는 그때 병이 깊었을 뿐 아니라 죽어 가고 있었던 거요."

"우리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소. 하지만 그 전에 우린 돈을 마련해 둘 수 있을 거요.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의 뒤를 이을 사람까지 그토록 무자비한 채권자라면 그야말로 운이 나쁜 거요. 캐럴라인,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거요!"

그렇다. 그들이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숨죽인 채 옹기종기 모여 있던 아이들의 얼굴도

한결 밝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덕분에 집안은 더 행복해졌다! 유령이 그에게 보여 줄 수 있었던, 이 사건으로 생긴 유일한 감정은 기쁨이었다.

"죽음과 관련된 다정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방금 우리가 떠나온 그 어두운 방이 영원히 제 눈앞에 남을 겁니다, 유령이여."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낯익은 거리 몇 곳을 지나 그를 데려갔다. 걸어가는 동안 스크루지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자기 모습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불쌍한 밥 크래칫의 집에 들어갔다. 스크루지가 전에 찾아갔던 바로 그 집이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난롯가에 둘러앉아 있었다.

조용하다. 아주 조용하다. 시끄럽던 크래칫네 꼬마들은 한구석에서 석상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책을 앞에 펼쳐 둔 피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딸들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스크루지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꿈에서 본 것이 아니었다. 그 소년이 그와 유령이 문턱을 넘을 때 소리 내어 읽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왜 소년은 계속 읽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일감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다.

"이 색깔 때문에 눈이 아프구나." 그녀가 말했다.

색깔이라고? 아, 가엾은 꼬마 팀!

"이제 다시 괜찮아졌구나." 크래칫의 아내가 말했다. "촛불 아래서 보면 눈이 약해지거든.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 눈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이제 곧 오실 시간이 됐을 거다."

"꽤 지났어요." 피터가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요며칠 저녁 아버지가 전보다 조금 느리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침내 어머니가 한 번만 떨렸을 뿐 차분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아버지가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 아주 빨리 걷는 걸 본 적이 있단다."

"저도 봤어요," 피터가 외쳤다. "자주요."

"저도 봤어요," 다른 아이도 외쳤다. 모두가 본 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어깨에 태우고 다니기에 아주 가벼웠단다," 그녀는 일감에 몰두한 채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그 애를 너무도 아꼈으니, 조금도 힘들지 않았지. 조금도. 그러고 보니 저기 문간에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녀는 서둘러 그를 맞으러 나갔고, 몸집 작은 밥이 목도리를 두른 채 들어왔다. 가엾게도 그에게는 그 목도리가 꼭 필요했다. 난로 위에는 그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들 서로 그에게 차를 더 챙겨 주려고 애썼다. 그러자 크래칫 집 어린 두 아이가 아버지의 무릎 위로 올라가 각자 자기 뺨을 아버지 얼굴에 가만히 갖다 댔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밥은 식구들에게 아주 쾌활하게 대했고, 온 가족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일감을 살펴보며 크래칫 부인과 딸들의 부지런함과 손놀림이 빠른 것을 칭찬했다. 일요일보다 한참 전에 다 끝나겠다고 그는 말했다.

"일요일! 그럼 오늘 다녀왔어요, 로버트?"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럼요, 여보." 밥이 대답했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이 얼마나 푸른 곳인지 보았으면 당신 기분도 좋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일요일마다 그곳을 걷기로 그 아이에게 약속했거든요. 우리 작고 작은 아이!" 밥이 소리쳤다. "우리 작은 아이!"

그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것을 억누를 수 있었다면, 그와 그의 아이는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방을 나와 위층의 다른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다. 아이 곁에는 의자가 바싹 놓여 있었고, 얼마 전까지 누군가 거기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가엾은 밥은 그 의자에 앉았다. 잠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밥은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입을 맞췄다. 그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였고, 아주 행복해진 마음으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불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들과 어머니는 여전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밥은 스크루지 영감의 조카가 보여 준 놀라운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밥이 그를 본 것은 한 번뿐이었는데, 그날 길에서 마주친 조카는 밥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러니까, 조금 풀이 죽어 보였거든요."라고 밥은 말했다. 조카는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밥이 말했다. “그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말씨가 상냥한 신사라서, 내가 다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크래칫 씨, 정말 마음 아프군요. 착하신 부인께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아셨다고요, 여보?”

“그야 당신이 착한 아내라는 걸 알았지요,” 밥이 대답했다.

“그건 다들 알아요!” 피터가 말했다.

“아주 잘 말했다, 얘야!” 밥이 외쳤다. “그러길 바란다. ‘착하신 부인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어. ‘제가 무슨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하면서 명함을 건네더구나. ‘여기가 제 집입니다. 꼭 찾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말이다,” 밥이 외쳤다. “그가 우리를 위해 무얼 해 줄 수 있을지보다도, 그 따뜻한 태도 때문에 이 일이 참으로 기분 좋았단다. 정말이지 그가 우리 꼬마 팀을 알고 있었고, 우리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만 같았어.”

“그 양반은 분명 마음씨 고운 분일 거예요!”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여보, 그 양반을 직접 보고 말을 나눠 보면 더 확신이 설 거예요," 밥이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둬요. 그 양반이 피터에게 더 나은 자리를 구해 준다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피터, 이 말 좀 들어 보렴," 크래칫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 딸들 중 하나가 외쳤다. "피터는 누군가와 사귀게 될 거고, 자기 살림을 차리게 되겠지."

"이제 그만 좀 해!" 피터가 웃으며 받아쳤다.

"그럴 수도 있지," 밥이 말했다. "언젠가는 말이야. 물론 아직 그럴 시간은 충분하지, 얘야.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헤어지든, 우리 중 누구도 불쌍한 꼬마 팀을 잊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첫 이별도 잊지 않을 거고."

"절대 안 잊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모두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안다," 밥이 말했다. "얘들아, 나는 알아. 우리가 그 아이가 얼마나 참을성 있고 얼마나 온순했는지를 떠올리면, 비록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우리끼리 쉽게 다투지 않게 될 거라는 걸. 그러다 가엾은 꼬마 팀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걸."

"아니에요, 절대 안 잊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다시 한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몸집 작은 밥이 말했다. "정말 행복하구나!"

크래칫 부인이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딸들도 그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어린 크래칫 두 명도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터와 밥은 악수를 나누었다. 꼬마 팀의 영혼이여, 그대의 어린아이 같은 본성은 하느님에게서 왔구나!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말했다. "무언가가 우리가 헤어질 순간이 가까웠다고 알려 주는군요. 저는 그걸 알겠는데,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앞서와 같이 그를 데리고 갔다.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달랐다고 스크루지는 생각했다. 사실 이 마지막 환영들에는 미래를 보여 준다는 것 말고는 아무 순서도 없어 보였다. 유령은 그를 상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데려갔지만, 거기에서 스크루지 자신의 모습은 보여 주지 않았다. 유령은 무엇 때문에도 멈추지 않고, 방금 바라던 목적지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스크루지가 잠시만 멈춰 달라고 간청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 안뜰," 스크루지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서둘러 지나가는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곳이고,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저 건물이 보이는군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 주십시오!"

유령은 멈췄다. 손가락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건물은 저쪽에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왜 다른 데를 가리키십니까?"

무자비한 손가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서둘러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사무실이기는 했지만 그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가구도 같지 않았고, 의자에 앉은 사람도 그 자신이 아니었다. 유령은 아까와 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유령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미래의 자신이 왜, 어디로 가 버렸는지 궁금해하며 쇠로 된 대문에 이를 때까지 유령을 따라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교회 묘지였다. 바로 여기였다. 스크루지가 이제 이름을 알아야 할 그 비참한 사람이 땅속에 누워 있었다. 참으로 어울리는 곳이었다. 주변은 집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풀과 잡초가 무성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식물의 죽음이 자라난 것이었다. 너무 많이 묻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실컷 배를 채워 살이 오른 곳이었다. 참으로 어울리는 곳이었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한 무덤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떨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유령은 아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스크루지는 그 엄숙한 형체에서 새로운 뜻을 본 것만 같아 두려웠다.

"당신이 가리키는 저 비석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스크루지가 말했다.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인가요, 아니면 단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의 그림자일 뿐인가요?"

여전히 유령은 자신이 서 있는 무덤을 향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의 행동은 그것을 고집하면 반드시 이르게 될 어떤 결말을 미리 보여 줍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면 결말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보여 주시는 것도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유령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떨면서 유령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무덤의 비석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에베니저 스크루지라는 이름이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던 그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무덤에서 그를 향했던 손가락이,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안 됩니다, 유령이여!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유령이여!" 그가 유령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외쳤다.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되었을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제게 아직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다면, 어째서 이런 것을 보여 주십니까!"

처음으로 그 손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선한 유령이여," 그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본성이 저를 위해 탄원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군요. 당신이 보여 주신 이 그림자들을, 삶을 고침으로써 아직 바꿀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해 주십시오!"

그 친절한 손이 떨렸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마음속에 새기고, 일 년 내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겠습니다. 세 유령 모두가 제 안에서 힘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저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해 주십시오. 이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제가 지워 버릴 수 있다고!”

그는 고통에 못 이겨 유령의 손을 붙잡았다. 유령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간절히 매달리며 손을 놓지 않았다. 유령은 더 강한 힘으로 그를 밀쳐 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되돌려 달라는 마지막 기도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다 그는 유령의 두건과 옷자락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줄어들고, 주저앉고, 점점 작아지더니 침대 기둥으로 변해 버렸다.

제5장

그 뒤의 이야기



존 리치, 「스크루지와 밥 크래칫」(1843년 초판 삽화)

그렇다! 그리고 침대 기둥도 자기 것이었다. 침대도, 방도 자기 것이었다. 무엇보다 좋고 가장 행복한 것은, 앞에 놓인 시간이 전부 자기 것이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겠다!" 스크루지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기어 나오며 되뇌었다. "세 유령 모두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힘써 일하게 하겠어. 오, 제이컵 말리! 이 일로 하늘과 크리스마스 절기에 감사를! 늙은 제이컵, 나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다. 무릎을 꿇고!"

그는 너무 들뜨고 좋은 뜻으로 달아올라서, 갈라진 목소리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유령과 싸우는 동안 격하게 흐느껴 울었고,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커튼이 뜯겨 나가지 않았어," 스크루지가 외쳤다. 그는 침대 커튼 한쪽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말했다. "뜯겨 나가지 않았어, 고리까지 전부. 여기 있잖아. 나도 여기 있어. 있었을 법한 일들의 그림자는 걷힐 수 있어. 걷힐 거야. 난 알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 내내 그의 두 손은 옷가지를 붙잡고 바쁘게 움직였다. 옷을 안팎으로 뒤집고, 거꾸로 입고, 찢고,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온갖 무절제한 짓에 옷을 끌어들였다.

"이제 어쩌면 좋지!" 스크루지가 웃다가 울다가 하며 외쳤다. 양말로 자기 몸을 엉클어 완벽한 라오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서였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고, 어린 학생처럼 즐거워! 술 취한 사람처럼 어지럽기도 하고!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행복한 새해! 여보게들, 이리 와 봐! 우후! 어이!"

그는 기세 좋게 거실로 뛰어 들어가 거기 서 있었는데,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저기 있다, 죽에 쓰던 냄비가!" 스크루지가 외치며 다시 달려 나가 벽난로 주위를 빙 돌았다. "저기 문이 있지, 제이컵 말리의 유령이 들어왔던 문! 저기 구석이 있어,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앉아 있던 자리! 저기 창문이 있지, 떠돌던 유령들을 내가 본 창문! 다 괜찮아, 다 사실이야,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하하!"

정말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쉬었던 사람치고는 훌륭한 웃음소리였다. 더없이 빛나는, 참으로 대단한 웃음이었다. 길고 긴 빛나는 웃음들의 행렬을 낳은 아버지였다!

"나는 오늘이 한 달 중 며칠인지도 모르겠어!" 스크루지가 외쳤다. "유령들과 함께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갓난아기나 다름없지.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차라리 아기가 되고 싶다고. 어이! 우후! 여보게들, 이리 와 봐!"

그때 교회들이 그가 평생 들어 본 가장 힘찬 종소리를 울려 대는 바람에, 그는 들떠 날뛰던 것을 멈추었다. 쾅, 쨍, 땡강; 딩, 동, 종! 종, 동, 딩; 땡강, 쨍, 쾅! 오, 근사하다, 정말 근사해!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안개도 없고 연무도 없었다. 맑고,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차가웠다. 차가운 공기는 피가 춤추도록 가락을 불어넣었다. 황금빛 햇살, 천국 같은 하늘,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 즐겁게 울리는 종소리. 오, 근사하다! 정말 근사해!

"오늘이 무슨 날이지!" 스크루지가 아래쪽의 한 소년에게 소리쳤다. 주일 나들이옷을 입은 그 소년은 주변을 구경하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뭐라고요?" 소년이 있는 힘껏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 친구야?" 스크루지가 말했다.

“오늘이요?”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날이잖아!” 스크루지가 혼잣말을 했다. “놓치지 않았어. 유령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걸 해냈군. 그들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지. 물론 할 수 있고말고. 이봐, 귀여운 친구!”

“네!” 소년이 대답했다.

“다음다음 골목 모퉁이에 있는 그 가금상 알아?”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럼요, 당연히 알죠.” 소년이 대답했다.

“똑똑한 아이로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대단한 아이야! 그런데 말이다, 저기 걸려 있던 상 받은 칠면조는 팔렸는지 알고 있느냐? 작은 상 받은 칠면조 말고, 큰 것 말이다?”

“제 몸집만큼 큰 거요?” 소년이 되물었다.

“얼마나 기특한 아이인가!”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 애와 이야기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 그래, 우리 친구!”

“지금도 저기 걸려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래?” 스크루지가 말했다. “가서 사 와.”

“에이, 농담 마세요!” 소년이 외쳤다.

“아니, 아니야.” 스크루지가 말했다. “난 진심이야. 가서 그걸 사다가 여기로 가져오라고 해. 내가 어디로 가져갈지 일러줄 테니. 그 사람이랑 같이 돌아오면 일 실링을 주마. 오 분 안에 그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 반 크라운을 주지!”

소년은 총알처럼 달려 나갔다. 그 절반만큼이라도 빨리 방아쇠를 당겨 총알을 쏘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손이 아주 안정된 사수였을 것이다.

“내가 그걸 밥 크래칫네로 보내겠다!” 스크루지가 속삭이며 두 손을 비비고, 킬킬 웃다가 몸을 들썩였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게 할 거야. 꼬마 팀보다 두 배는 큰 놈이거든. 밥네로 그걸 보내는 것만 한 농담은 조 밀러도 해 본 적이 없을걸!”

주소를 쓰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는 주소를 써냈다. 그러고 나서 가금상 점원이 올 때를 대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문을 열어 두었다. 거기 서서 점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문고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평생 이걸 아끼겠어!" 스크루지가 외치며 손으로 그것을 토닥였다. "이 문고리를 전에는 거의 쳐다본 적도 없었지. 얼굴 표정이 얼마나 정직해 보이는지! 정말 멋진 문고리야! — 칠면조가 왔군! 어이! 우후! 잘 지냈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대단한 칠면조였다! 저 새는 다리로 절대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다리가 봉랍 막대처럼 순식간에 딱 부러졌을 것이다.

"캠던 타운까지 그걸 어떻게 들고 가겠느냐," 스크루지가 말했다. "마차를 불러야 할 거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낸 킥킥거림, 칠면조 값을 치를 때 낸 킥킥거림, 마차 삯을 낼 때 낸 킥킥거림, 심부름 소년에게 사례할 때 낸 킥킥거림도 그가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이 나올 때까지 킥킥거릴 때의 웃음에는 못 미쳤다.

면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이 여전히 몹시 떨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도는 춤을 추면서 하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그가 코끝을 베었다면, 그 위에 반창고 한 조각을 붙이고 그것으로 아주 만족했을 것이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마침내 거리로 나갔다. 이때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다닐 때 본 그대로였다. 스크루지는 두 손을 등

뒤로 맞잡고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흐뭇한 미소를 띠고 바라보았다. 한마디로 그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유쾌해 보였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 서너 명이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스크루지는 그 뒤로도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명랑한 소리 가운데 그 인사가 자기 귀에 가장 명랑하게 들렸다고.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뚱뚱한 신사를 보았다. 그 신사는 전날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들어와 "스크루지 앤드 말리 상사 맞으시지요?"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이 노신사가 자기를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하자 스크루지의 가슴이 쿡 찔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어떤 길이 곧게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길을 택했다.

"아이고, 선생님," 스크루지가 걸음을 재촉하며 노신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일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스크루지 씨?"

“그렇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선생님께는 달갑지 않게 들리실까 걱정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친절을 베푸시어…” 여기서 스크루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나!” 신사가 숨이 막힌 듯 외쳤다. “아니, 스크루지 씨, 정말 진심이시오?”

“부탁드립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한 푼도 깎지 마십시오. 그 돈에는 그동안 밀린 몫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선생,” 상대가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이렇게 후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스크루지가 받아쳤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와 주시겠습니까?”

“가겠소!” 노신사가 외쳤다. 그가 정말 그러려는 것이 분명했다.

“고맙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쉰 번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는 교회에 갔고, 거리를 거닐며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거지에게 말을 걸었으며, 집들의 부엌을 내려다보고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책이라는 것이, 아니 그 무엇이든, 이토록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는 그는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문 앞을 열두 번쯤 지나친 뒤에야 올라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났다. 그리고 한번 마음먹고 달려들어 두드렸다.

"댁의 주인어른 계신가, 아가씨?" 스크루지가 하녀에게 물었다. 착한 아가씨였다! 정말 착했다.

"네, 나리."

"주인어른은 어디 계신가, 아가씨?"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분은 식당에 계세요, 나리. 마님과 함께요. 괜찮으시면 위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나를 알아볼 테니까." 스크루지가 이미 식당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여기로 들어가겠네, 아가씨."

그는 살며시 손잡이를 돌리고 문틈으로 얼굴을 밀어 넣었다. 조카 내외는 식탁을 살펴보고 있었다(식탁은 아주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런 일에는 젊은 살림꾼들이 늘 조마조마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프레드!"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이고, 맙소사! 조카며느리가 어찌나 놀랐는지. 스크루지는 그 순간 발판을 놓고 구석에 앉아 있던 그녀를 잊고 있었다. 잊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고, 이런! 거기 누구세요?" 프레드가 외쳤다.

"나다. 네 삼촌 스크루지다. 저녁 먹으러 왔다. 들여보내 주겠니, 프레드?"

들여보내 주다마다! 조카가 그의 팔을 흔들다가 아예 빼 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는 오 분도 안 되어 집에 있는 사람처럼 편해졌다. 그보다 더 따뜻할 수는 없었다. 조카며느리도 그대로였다. 토퍼가 왔을 때도 그랬고, 통통한 여동생이 왔을 때도 그랬고, 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멋진 파티였고, 멋진 놀이였고, 멋진 한마음이었고, 멋-지-고-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일찍 나갔다. 아, 정말 일찍 갔다. 자기가 먼저 도착해서 밥 크래칫이 늦게 오는 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가 마음에 단단히 품고 있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해냈다. 그렇다, 정말로 해냈다! 시계가 아홉 시를 쳤다. 밥은 없었다. 아홉 시 십오 분이 되었다. 여전히 밥은 없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꼬박 십팔 분 반이나 늦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앉아, 밥이 골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모자는 문을 열기도 전에 벗겨져 있었고, 목도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순식간에 걸상에 올라앉아, 아홉 시를 따라잡으려는 듯 펜을 힘차게 놀리기 시작했다.

"이봐!" 스크루지가 평소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 내어 으르렁거렸다. "지금이 몇 시라고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냐?"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밥이 말했다. "제가 시간에 늦었습니다."

"너 늦었다고?" 스크루지가 되풀이했다. "그래, 늦은 것 같구나. 이리 좀 와 보거라."

"일 년에 한 번뿐이잖습니까, 사장님." 골방에서 나오며 밥이 애원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어제는 제가 좀 흥겹게 지냈거든요."

"자, 이 친구야, 내 한마디 하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런 꼴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말을 이으며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밥의 조끼를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밥이 비틀거리며 다시 골방 안으로 물러났다. "그래서 네 봉급을 올려 주려고 한다!"

밥은 몸을 떨며 자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는 순간 그 자로 스크루지를 때려눕히고, 그를 붙잡은 채 안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 구속복을 가져오게 하는 상상을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밥!" 스크루지가 그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 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밥, 이 친구야, 지난 여러 해 동안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훨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 네 봉급을 올려 주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네 가족도 힘껏 도와주마.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숍 펀치 한 사발을 앞에 놓고 네 사정을 이야기해 보자! 밥 크래칫, 글자 하나 더 쓰기 전에 난로에 불부터 지피고 석탄 통도 하나 더 사 오너라!"

스크루지는 자신이 한 말보다 더 많이 해냈다. 그는 약속한 것을 모두 지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죽지 않은 꼬마 팀에게 그는 두 번째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 좋은 옛 도시가, 아니 이 좋은 옛 세상의 어떤 좋은 옛 도시, 마을, 자치구가 알던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주인이자,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웃도록 내버려 두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을 그는 알 만큼 현명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제대로 보지 못할 테니, 그 병을 더 흉한 꼴로 앓느니 차라리 히죽거리느라 눈가에 주름을 잡는 편이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마음이 웃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유령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죽 금주 원칙에 따라 살았다.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그는 늘 들었다.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진정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꼬마 팀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번역과 검수 안내

번역 대상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A Christmas Carol)』(1843) 영어 원문입니다. 원문은 장을 캐럴의 '절(Stave)'이라 불렀지만, 이 번역은 듣기 쉽게 '장'으로 옮겼습니다.

초벌 번역은 Claude Haiku 5.5가 문단마다 만들고, Claude Opus 5.5가 머리말과 전5장 711문단을 영어 원문과 모두 대조해 오역·누락·인물 말투·문체를 고쳤습니다(고친 곳 649곳). 이어서 장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말투·문장을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고친 곳 124곳). 대사의 높임말은 인물 관계에 맞춰 한 가지로 맞췄습니다. AI 검수는 전문가 교열이나 의미 정확성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Charles Dickens, A Christmas Carol. In Prose. Being a Ghost Story of Christmas, 1843. 전자 텍스트: Project Gutenberg #46 (퍼블릭 도메인).

장마다 실은 그림은 1843년 초판에 실린 존 리치(1817~1864)의 삽화로,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0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림 출처

1. 제1장 · 존 리치, 「말리의 유령」(1843년 초판 삽화)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2. 제2장 · 존 리치, 「페지윅 씨의 무도회」(1843년 초판 권두 삽화)
   위키미디어 공용 · CC0

3. 제3장 · 존 리치, 「스크루지의 세 번째 손님」 —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1843년 초판 삽화)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4. 제4장 · 존 리치, 「마지막 유령」(1843년 초판 삽화)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
5. 제5장 · 존 리치, 「스크루지와 밥 크래칫」(1843년 초판 삽화)
   위키미디어 공용 · Public domain